(一) 號百一千一第 THE DONG-A DAILY, SEOUL (日曜日) 日二月九年二十正大 (可認物便郵種三第)

東亞日報

發行所 京城府花洞一三八番地 株式會社東亞日報社
發行兼編輯人 印刷人

平壤洋襪職工의同盟罷工問題
雇主側의反省을促함

八月二十一日에勃發한平壤洋襪職工의同盟罷業은漸次時日의經過함을따라 더욱々々그氣勢가險惡하여지나니 雇主及職工의變態를見하건대 共히 一伸一弛하야 始하얏도協調의接近点이 絶無한것갓도다 吾人은該同盟罷業의眞相을 玆에 詳論하야少히批判을加코자하노라

平壤洋襪職工의同盟罷業은 先次雇主側의斷行한賃金低減의決議에始하야 以來十數日間에罷業의進行은 幾多의附帶問題를惹起케되얏도다 即罷業의導火線은一個賃金低減에不過하얏스나 雇主對職工側의軋轢은該賃金問題를中心으로 幾多의難關을惹起하얏스니 或은機械月賦의問題와 或은機械의修繕及賠償과或은機械徵收等諸問題는 潮及하야 ……이와가치雙方의主張은漸々隔離하얏고 一時雙方의妥協에 一縷의望이有하든바이러니 問題는更히逆轉하야雇主側의內部分裂과 官憲의干涉을招來케되얏도다 吾人은以上雙方의要求를批判하기前에 몬저該事件을突發케한雇主側의賃金低減의可否와그時期의如何를 一顧치안할수업도다 元來平壤市의洋襪工業은最近十有餘年의發達로朝鮮屈指의小工業이라 그年產額도逐年增加할뿐아니라 此에從事한一般小工業者도相當한繁榮을 致케되얏든것은世人의共知하는바事實이니 即洋襪工場의雇主側大部分은過去에잇서이만큼의利益을收하얏든것이로다 그러나生產者의增加와其他經濟上諸原因으로 斯業의利潤이漸次減하게되얏슴은 또한避못할事實이로다 於是에斯業의不況으로因하야 中途廢業의慘狀을當한者가大半을過하얏다하는지라 吾人은이點에照하야도 雇主側의工場經營의如何히困難한것을 認定함에不吝하도다 그러나이와갓흔現象은 經濟界의消長作用이니 다만雇主가生產技術의改良을圖하든지 或은生產品의優良을圖하야 昔日의繁榮을極力維持하는수밧게 別途의救濟策이無하리로다 萬一이와갓흔勉勵와改良이無하고 그利潤은依然히昔日의繁榮時代를夢想하는데잇다하면 이는雇主側의妄想에不過할지요 또一步를進하야洋襪工場의利潤이他業에比하야 가장低劣하다는反證이업는以上目下의經濟界不況은殆히共通一般의現狀이라獨히洋襪工業者에 限함이아닐지로다 그러면工場의洋襪工業者가事業의不況을理由로하야賃金低減을斷行한것은 何等辯護할餘地가無하도다 그러고目下平壤의一般의水害로因하야 그慘害를被한貧民은古來未有의悲境에陷하얏스니 一般細民의恐慌은果然如何하리오 이와갓흔 生活의危機에瀕한時期에自家의私腹을充하야 一般職工의賃金을低減하는것은더욱히 人道上으로보아看過치못할無理한處置라 아니할수업도다要컨대雇主側의行動은그理由의如何에不拘하고 賃金低減을斷行케할時期가아니며 第二는雇主側의云々하는事業上不況이 決코洋襪工業에止치안한것을反省할必要가有하도다 그러고더욱히吾人의怪訝에不堪하는點은 雇主側의態度가그無理함을自認하면서 機械代의一時徵收와其他機械의修繕費等을一般職工側에게負擔케한것이니 이는 工場主의經濟上原理로보아實로古今無類의珍奇한事實이아니라할수업도다 工場主의利潤을組成하는部分에는 諸般設備의提供에該當한利益을收하는것은勿論일지니 이와갓흔非理의搾取를엇지容認할바이리오 今番雇主側組合員中에서도그無理不可함을自認하야 組合의決議에脫退하라는 工場主도有하다하는지라 엇지 一般雇主側에對하야 反省의餘地가有치안는가 一般職工이結束蹶起하야 이와갓흔非理橫暴에一般職工이結束蹶起하야反抗하는것은漸次强硬하야지는 것도 또한無理가아니로다 吾人의希望하는點은 一般雇主側의猛省을促하야賃金低減決議의撤廢와 機械及修繕費의强制徵收를廢止케할것을懇願하야不已하는바로다

社會主義와農業問題(四)
南 農(寄)

第一編 社會主義와農業問題(續)
第三章 資本主義社會에對한農村(續)

第四 小農의無產階級化

大農優越의反面에는 小農零落이現出된다 小農制가大農制에게滅亡되는事實은 반다시手工紡績이機械紡績에게滅亡됨과同一한精確과速度를가젓다고는言키難하나 長久한過程에서는此種의現象을볼수잇다 本來 無產階級이라함은貧困을意味함이아니오 生產機關을所有치못하얏다함이다 小農은土地 農具 家畜等의生產機關을所有하얏슴으로 形式的으로無產階級이라고言키難하다 그러나彼等의所有한生產機關은何의價値가지지못할것이다 日本과如히極端으로小經營制度가發達하고 또米作의性質上 大規模의機械化임에不少한障害가잇는國家에잇서는 大農制의出現이甚히遲緩하나 何如間小農의無產階級化의現象은不斷히生起하는것이다

第五 農村逃亡

小農의零落에伴隨된現象은農村逃亡이다 過剩된農村人口는潮水와如히都市에流集하야所謂『故鄕업는無產者』로化한다 그럼으로農村人口의稀薄과共히大都市의人口가非常히膨脹하야 그結果都市의工業勞働者의生活을低下케하고 一方農民의精神的刺戟을減殺하며 그精神生活을動搖케하야農產物의需要를增大케함으로結局土地의經耕을助長케하는것이다

第六 農民의階級的分裂

農村의資本主義化에伴하야農民間에는近世의階級分裂이生하는것이다 今日의農民은形式的으로地主 自作農 小作人 農業勞働者라함과如히分類할수잇스나 社會的으로富農 中農 貧農이라고 概括的으로分類하면充分하다 農村의階級分裂은都市의그것과如히鮮明치못하고 또多少間그性質에異點이잇스나 以上三者에對하야論述하면次와如하다

第一에 都市의商工資本階級에該當한것이富農이니 여기서富農이라함은大地主又는資本的經營의大農을指稱함이다 封建經濟時代에서農奴의勞働力을搾取한者는此富農의前身이라할수잇고 彼等의現在地位는 都市資本家와同一한 搾取階級에屬하야 小作人又는農業勞働者의勞働力을搾取하는者임으로 ××的無產階級의決코和睦할수업는敵이다 今日保守主義의支持者가彼等中에最多하고 恒常進步的運動에對하야反動的運動의源泉이된다함이니 即歐羅巴軍隊의士官은거의地主의子弟라함이其例이다 富農은他農民에對하야經濟的政治的의觀念的影響을及케함이大함으로 그勢力을排除함은緊미必要한事가될것이다

第二에都市의小資本階級에該當한것이中農이니여기서中農이라함은中等農業者인대自家所有의勞働力으로써經營하야生活함으로地代又는賃金勞働의形態에依하야他人의勞働力을搾取한事實이업는者를僞함이다 歐羅巴에서는中農의數가甚多하야都市에서小資本階級의手工業者와小商人이大資本家에게是에全히壓倒된에反하야中農은富農에對하야相應의勢力을가진것이다 日本에서는二町乃至五町의所有者를中農으로看做할것이나그比率이貧弱하야거의一町以下의耕作者가됨으로 中農의社會的勢力은甚히薄弱하다 元來中農은保守的이오 自足自給에安堵하는一種의本能이잇슴으로 그心理도非革命的이다 그러나彼等의經濟的地位는決코安固한것이아니다 彼等은生產物의販賣에當하야富農의壓迫을밧을뿐아니라 土地抵當의負債에呻吟하는者이다 農業은利潤이薄함으로 一次土地를抵當하면容易히此를返償할수업고 따라서實際上의土地所有者는金融業者에不外할것이다 그럼으로革命的無產階級은이中農을自己의同志로化케하거나적어도中立態度를가지도록努力하는것이다

第三에都市無產階級의眞實한兄弟이며自家貧農이니左의二個要素를가진者이다 即自家所有의小地面으로만은生活키不能함으로一時的賃金勞働을하거나 或은小作地를耕耘하야겨우그生活을維持하는借地農인小作人又는全혀賃金勞働에依하야生活하……

新社會의新光明(七)
崔瑨淳(寄)

우리의人格的自我 即生命이 우리의一切價値創作의源淵動力이된다는것은 前述한바어니와 如此한 生命은 質로 吾人이 玆에 論하려는 絶對價値即聖愛를通하야 비로소 其本性을發揮함을得하리로다 만일 우리가 如此한愛를떠나서 又는物欲中에서 自我即生命을體驗할수잇다하면 如此한體驗에서得하는自我는 僞瞞的自我又는假裝的自我됨을不免할지로다 우리는 懺々한理智의光輝에빗초이는 聖愛의發動에 依하야비로소 眞正한自我 即生命을人格的으로 如實히 把握함을得하리니 質로 眞正한自我의體驗은 聖愛를떠나서 何時何處에서 如何한手段으로든지絶對的으로 期키不可能일지며 且 우리個々人도 意識的體驗生活을持續하는限에잇서서 如此한自我生命의 如實的發輝의可能性을有함과同時에 또한如此한 自我의如實的發輝를促進할 聖愛의體驗에對한可能性도有하는도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價値生活中에서 愛라는要素의部分的潛在를 容易히 發見할수잇나니 認識的生活에在한 智識探求愛 道德的生活에在한 同情親切及博愛 審美的生活에在한戀愛 家庭生活에在한 親愛又는母愛 社會生活에在한 友愛政治生活에在한 愛國心 又는所有愛等 量에잇서서 最少함을不拘하고 質에잇서서 各其價値生活을規範的으로指導함을 容易히 認識할수잇나니 其中特히 母愛와性愛와如함은 가장 顯著한者라고云하겟도다 吾人은 多支多流로形成된 大川大河를對할時 其源淵의 最初의一滴水에在한것을 容易히 聯想하겟스며 且 其最初의一滴은 量에잇서서 最小함을不拘하고 質에잇서서 能히 其大川大河의生命이되며 此를支配함을 容易히認識할수잇나니 우리의內面의心性에在하야도 分斷的諸價値生活에表現되는 分斷的의省的愛를超越하야 存在하야 此의動力이되며 此를 規範的으로 指導하는 全一的 獨自的乃至具體的愛의 實在함을 容易히想測할수도잇나니 如此한愛는 質로 人格的으로 直接體驗할수잇는 唯一의先驗的意識即最高衝動이라 經驗的意識又는反省的認識을超越치안코 直覺的으로意識할수잇는 絶對衝動이니우리는 如此한衝動의實在함을 把握치못할지며 且 우리의生命도 如此한最高衝動 即燃燒的絶對愛의衝動에依하야 此와共히歡樂하지 비로소 如實히 其本質을發揮하나니 生命이 如實로生命의體驗中에서 發顯되며 生命을把持할수업나니 如此한意味에서 愛는 生命의質이며 生命의絶對要求라고云하겟스며 또한 一層嚴格한意味에서 生命其物이라고云하겟다 現代佛蘭西哲學者 베륵손氏는 生命은 其本質에잇서絶對的 無限的 自由的持續的創造的乃至流動的이라는意味에서『歡喜』와『聖節』으로써此를象徵코저하얏나니 玆에吾人은極度의歡喜 即엑쓰타시를떠나서愛를形容할수업다는見地에서 此를論할時는 세룩손氏의所謂『歡喜』와『聖節』도畢竟此聖愛를意味함에不外하며且如此한意味에서 吾人은 愛는生命의象徵이라고云코저하는者이며 吾人이 愛로써生命의質이라고云함에 不外하도다 如此한 絶對價値即聖愛는 一切對立、分割、打破를超越하야 存在함에不外하도다 如此한 聖愛는 一切對立、分割、打破를超越하야 存在한다 함이니 ……萬人을 그光輝로빗초이는火焰이라 萬有宇宙의心胸에서發하는『드대여』 自我의心胸에서發하는『火焰』이니 一個小我의心胸에包容하야 大自然을 其抱擁할가지及하야 萬有宇宙의心胸에 此를透照하는『無限絶對의權威와神聖과自由를有한 聖焰이라 故로愛는 一切價値의對立及分裂을其『엑쓰타시』中에燃燒하야『無』의狀態에서 無의狀態에서 生命을作하며 更히此『無』의狀態와共히歡樂하며 無限한價値를不斷히創造하나니 故로 一切價値는狀態에서 此愛와의키쓰에依하야 비로소 또價値의根本意義를得하겟스며 비로소우리의自我即生命도 此愛와의키쓰에依하야 비로소 其本性을如實히發揮함을得하겟도다

너희들은무엇을어덧느냐(7)
廉想涉

(상편) 二一七

『그러나 아와하든이약이를마자해야지그래학교에서 또거낫나?』

한규는 정신을차리고 이러케다시무럿다

『아니 자세는몰다도내집작가태서는 미국간다는핑계를하구이번에 고만두엇나 보단말이얘요 덕순이형님도 인제는멀미를내이든관이니까 말하자면 잘된쉐음이지』

『아닌게아니라 머리人살도압흘테야 케걸할나히는 아버지人별이나되구 묵사발가튼데가리에다가 게다가쌍집행이라면 누가조하할구……하々々』

한규는 덕순이에게 동정하든 이런소리를하고나서 유쾌한듯이우섯다 경애도 묵사발가튼머리라는말에따라우섯다

『그나그뿐인가 두살이나더먹은친척人소생을데리구살라니그리지안어도 귀가 폭々썩을것을며누리가 드러온뒤로는 더군다나눈이안나키서……어떠튼 오래는못가지 가만히보면 참불상해』

경애는 진정으로 가엽게생각하는모양이다

『오래안가면어떡해? 지금새삼스럽게헤어지자면될일인가당초에 혼인을하기가 불찰이지』

『경우로뜨지면야 그두사람치만 아무것두몰랏스면 그대두지내겟지만 무엇좀알게되니까 쿵々충이나서 그배두 지내겟소? 덕순이의형님두 만세이후로는 작실히 퍽변한모양입되다 게다가글쌔나 쓰는사람들하구 추축을하고 잡지니문학이니하게되니까 엔세상가는생각이 나는게지……그건 고사하고 『벨렌』케이『노라』니『입센』이니하는자유사상(自由思想)의맛을보게되니까 모든것을 자긔의처디에만비교해보고 한층더 마음이움즉이지 안켓소』

『글쎄그러면무얼해! 마음대로하는것두 조켓지만 아무친척두업고 도라다볼사람두 업는것을번연히 알면서 덥어노코뛰여나오면 요새누구々々하는사람들모양으로 하영만 날뿐이지누가그런사람을 데려가랴나!』

한규도 의외에 지각이난소리를한다

『글쎄그건두가아루 그카그런 란말이지 웨또 안데려갈거야무엇잇소』

『누가그럼 헌계집을데려간답 누구모양으로 남의 첩노릇이나햇지!』

한규와가튼 성격으로는 하염직한소리다 그러나 경애는헌계집이라는말에 가슴이 선뜻하얏다『헌계집! 남의첩!』이란생각을하야보니까 덕순이가 금세두런만계집가치생각이되엿다 동시에 분바르고담배피어물고 단々바람으로 안젓는 첩쟁이가눈압에 왓다갓다 하는것같아 얌나 그 다음에는

『나도 그러케되면 헌계집이되엿드람』 하는생각을하야보고 눈쌀을찌푸렷다

『그러나』당초에 혼인이 어떠케되엿드람 피차에 서로보고뎡햇겟지』

이야기가 잠간 동이떳다가한규는 이러케무르며 머리人맛헤노힌 가방에 기대엇다

『웨 만나보기야 햇답되다 그러나 지금우리넌갑이면 대강을뎡은 짐작하지만 그버즘이야어되그런소 게다가 돌보아주는부모도업구 학교선생들이 우물쭈물하는것인데 졸업은하구 갈텐업스니까 흐지부지슬린거지 하지만 미국이라면 상성이나뎁비는관이니까 미국출신이란 바람에 쑥발이라는놈도 조금은 감추어진거겟지 말하자면 미국이 또한사람 잡켓지! 하々々』

『하々々 그래 그리구서 지금와서 쑥바리니 리해가업느니하면 무엇해? 쓰면 뱃구 달면생키구!』

이번에는 슬며시 령감편을드는모양이다

『그야 남의사정을 누가아오만은 글친구하고 교제가넓어지고 책人지나보니까 미국보다도더조코 더큰문데가 잇는것을 알게된게지』

경애도 생김々々이 보아서는 매우 컴잔은소리를하는 녀자다 만규는 그럴뜻이 드르며 연애고개를 쓰덕어리엇다

皮膚病에는
玉置의요-지水
발나서安心効力顯著

夏期는各種의皮膚病이最히蔓延하는季節이라故로皮膚病에걸니면爲先무엇보다도優秀한藥을撰擇하야발느는것시肝要하외다萬若粗惡한藥이면病菌을皮內에驅込하야慢性으로變하게됨니다。요지水는永年苦心研究를遂하야皮膚病界上最新의配劑에依한藥質効果가들이되야서最히優秀한皮膚病藥으로皮膚病治療에는爲先安全한것으로요지水를撰擇하십을推薦하나이다。

優秀藥의誇張

요지水는他藥과如히油氣를混入지아니하고藥質純良製法獨特皮膚病에쓰리고압픈것을不感하며又殺菌力이强大한優良藥을使用하는故로萬一誤飮으로口中에入하드래도危害가絶無하고其治療効果의迅速한것은病이드리것는愛癒를省하는어머니시安心하고有効家庭藥으로常備함에適當함。

兒孩의皮膚病

兒孩는어룬의保護하는것으로特히皮膚病은速히治療하야주지아니하면可憐하외다그러면쓰리지안코압흐지아니하며드리것지안는効果의最勝하고萬一目口에入하드래도害毒이업는요지水야말노兒孩의治療에使用할唯一最良藥이라고推薦함니다。

요-지水를바르난病名

主効 疥癬、사면발、湿疹、부프르는데、腫氣、搔痒症、面皰、옷오른데、여드름、죽은깨、겻땀、암내、살거친데、蚤蝨、빈대、南京虫의刺傷其他皮膚病

定價 小瓶三十錢 中瓶五十錢 大瓶一圓 特大二圓 (送料內地小二錢其他十二錢)

發賣元藥品問屋 東京日本橋區瀨戶物町 玉置合名會社 振替東京七二番 電話本局一〇六八、一〇二九七番

요-지水는 全國藥店에有함

森永ピース
京味佳良
一個五錢十粒
両 1 函
薄荷・肉桂의二種

M-80
森永製菓株式會社

培材學堂補缺募集
一二三學年若干名
九月七日까지出願

京城清進洞百二十一番地 吉川金物支店
京城鍾路通二丁目八三番地 吉川金物分店
電話本局三四七〇番 振替口座京城一〇九七〇番

◎文化的理髮器具大權威?!
◇注文即時引換代金郵便으로送付함◇
◇定價表有用이신時는一報次第送呈함◇

再生 活命液
特製德用瓶四圓 大瓶二圓二十錢 中瓶一圓五十錢 小瓶八十錢 試瓶三十錢
電氣即治液 淋疾特効藥 梅毒消滅球
京城府仁寺洞二百四番地(鍾路通中央) 本舖 再生堂藥房 主 車九鉉 振替京城四七五八番

洋靴는太昌號에限함
秋季의新流行을 高價를中止하얏음
紳士靴! (白쓰그奉特皮底) 三圓
運動靴!

商品目錄無代進呈
京城南大門通 太昌號 電話長光四〇七番 振替京城一〇五七一番

醫藥界를驚케한 梅毒專治新藥

特約販賣店
東京市 大阪市 京城本町一丁目 仁壽堂 京城本町四丁目 山岸天祐堂 京城本町四丁目 木村眞三郎 川浪藥房
外各地大藥店에서取次販賣함

順天堂醫院
一、診療科目 皮膚科、耳鼻咽喉科
一、診療時間 自午前八時至午後九時
京城府鍾路二丁目四十九番地
醫師 尹喜植

開院
敬啓小生이今般朝鮮總督府醫院을辭하고左記處所에서一般診療에應하고자하와玆에仰告하오니不幸히病苦로呻吟하시는人士는一次訪問하옵시기를切望하나이다
槿惠醫院
京城府北部洞一〇五番地 院長 申錫煥 院主 金東浩

ClibPDF - www.fastio.com

獨佛關係緩和乎

獨逸은佛國人이運轉하는『루-르』地方의諸鐵道를獨逸人이使用함을禁止하는件은中止코저考慮中이며又獨逸은佛國에게石炭代川支拂을禁止한命令을撤回코저考慮中인바獨逸은如斯히하야施政的反抗對策을變更하는中인즉此에依하야見하면結局獨佛兩國間은休戰할만한基礎를作코저하는模樣이더라(伯林三十日發)

루-얼地方作業開始

=獨逸財界의巨頭『스틴네스』『나엘』『하니엘』諸氏는二十九日朝에他의有力한實業家와會商한結果『루-얼』地方의作業을再開하기로決定하얏더라(紐育三十一日發)

希、伊國通牒拒絕

『메사제로』新聞에서報하는바에依하면伊太利의最後通牒에對한希臘의回答은承認키難하니希臘은五千萬『리라』의賠償金支拂을拒絕한後伊太利의國旗에對한禮砲와被害伊太利委員의遺骸에敬禮를表하라는要求에對하야修正을要求한所以라더라(羅馬三十一日發)

希臘全國에戒嚴令

=『엘트랄뉴스』通信社雅典特電에依하면希臘全國을通하야戒嚴令이布告되얏스며又當地希臘公使館에서發表한바에依하면希臘은國際聯盟에對하야希臘伊太利間危機에就하야干涉하기를要求하얏는데右要求는雅典으로부터『제네바』로送附되얏다더라(倫敦三十一日發)

伊軍南部國境에集中

=伊太利軍隊는南部國境에集中하얏다는報道가伊太利로부터當地에到着하얏더라(巴里三十一日發)

希通信員退去命令

=『트리부나』新聞紙所報에依하면希臘新聞通信員三名은伊太利로부터退去命令을當하얏다더라(羅馬三十日發)

伊軍콜푸島占領

=伊太利軍은希臘의『콜푸』島를占領하얏더라(雅典三十一日發)

伊希反目과國際聯盟의權限

=國際聯盟理事會委員의言에依하면希臘으로부터直接要求가無하면國際聯盟에서는右兩國의危機에干涉할權利는無하다더라(『제네바』三十一日發)

希臘國際提議決意

=希臘政府는伊太利政府에서提出한屈辱的條件을甘受하기를不悅하야萬若同問題에關한交涉이如意치못한境遇에는此를國際聯盟에提出할覺悟이라더라(雅典三十日發)

大使會議에서問題解決希望

=歐洲各國은伊太利의『알바니아』派遣委員虐殺事件에關한伊太利希臘間紛爭에對하야憂慮의念으로써其形便을注視하는中인데倫敦巴里의一部有力者間에서는大使會議에서同問題를解決하기를希望하더라(倫敦三十日發)

抗議勸告決議

=大使會議에서는英佛伊三國政府에對하야聯合通牒으로써希臘政府에對하야『알바니아』派遣伊太利國際委員虐殺에抗議하는同時에右事件의取調를開始하도록希臘政府에勸告할事를要求하얏더라(倫敦三十一日發)

希政府修正承諾

=希臘政府는伊太利政府에서要求한條項中左와如한四個條를修正한後承諾하얏더라

一、現場의司令官은暗殺事件에對하야伊太利公使에게慰安의意를表함
二、哀悼式을擧行하고政府의各大臣은此에參列할事
三、雅典衛戍隊의一技隊를出하야伊太利公使館에至하야伊太利國旗에敬禮를表케할事
四、犧牲者의遺骸가伊太利軍艦으로移載할時에軍隊로써遺骸에對하야敬禮를行케할事

右以外의各要求는希臘의主權及體面에關한다는理由로써此를拒絕하얏더라(雅典三十一日發)

愛蘭共和黨의勝利

最近報道에依하면共和黨은議席八十을得하얏다하며三十日夜外지에得票는政府黨四十一共和黨二十八無所屬十四農民黨八이라더라(『더불린』三十一日發)

婦人代議士四名當選

=愛蘭自由國總選擧의結果閣員中落選한者一名을除한外에는全部當選되얏스며又昨年『사크빌』街에서戰鬪中戰死한『부라하』氏의夫人外四名의婦人도當選되얏더라(『더불린』三十日發)

米墨外交再開了

米國은墨西哥와外交關係를再開하얏더라(華盛頓三十一日發)

米國新戰艦就航

米國新戰艦『콜로라도』號(三二、六〇〇噸)는就航한바右建造費는二千七百萬弗이라더라(華盛頓三十日發)

女王即位廿五年

和蘭二十日發電에依하면和蘭女王『윌헬미나』女王陛下의即位二十五週年紀念祭에常設國際司法裁判所長『로-다-』氏는女王으로부터和蘭獅子大綬章을授與되얏더라(海牙三十日發)

萬國赤十字會議 米國委員은缺席

當地에서開催된第十一回萬國赤十字社會議에米國委員은欠席한바右不參加한理由는米國委員이로부터同會議에對한警告即同會議의決議로金錢에依하야左右됨과如한事가有하야서는不可하다는警告로因하야憤慨한듯하다더라(『제네바』三十日發)

米國은『我利主義』

前英國大法官『바』卿의攻擊

英國『로이드、쪼지』內閣時代의大法官이던『바-큰헤드』卿의米國에서試한第一回演說은紐育에서一大物議를惹起한結果『윌손』內閣當時의陸軍次官이던『휠리、씨예큰릿지』氏는紐育辯護士會에對하야近々開催할辯護士協會大會席上에『바-큰헤드』卿으로하야금演說케하기로한事에反對하는抗議를提出하기로하얏는데如斯한物議를惹起한것은去二十五日『바-큰헤드』卿이『윌라암스타운』에서試한一場의演說에由함인데其演說內容은歐羅巴에對한米國의態度를說明한것으로其我利主義와反他愛主義에在하다는論旨를陳述하고更히『윌손』氏는米國民에게對한批判을誤한所以로氏는戰後米國에在한一切事物의發展을阻礙하는態度에出하얏스나同氏의愛他的精神은如斯한發展에阻碍되는것이無益한事實이라論하얏더라(紐育二十七日發)

攝政內閣의實權

高內務總長이行使

=攝政內閣의首席總長은閣議에서內務總長高陵蔚氏가實權을行케되얏더라(北京三十日發)

國務院의總統選擧勸告

=國務院은國會에對하야現攝政內閣의任期가法律上九月十三日로써滿了되는旨를通告한後其期日以前에總統選擧를行하도록勸告하얏다더라(北京三十日發)

日本提案은考慮中

二十九日特別委員會에서는各國公使로부터日本修正案中其要點에就하야質問을提出하고簡單한意見을交換하얏스나何等具體的決定을見치못한바各國公使는共히日本修正案에對하야別段本國政府에請訓한것은아니고單히考慮中이라는意味로會議는閉會하얏더라(北京二十九日發)

東淸土地調查

米公使旅行用務

米國公使『슈만』氏一行은三十一日夜七時에來奉할터인바一行은奉天을經由하야直時哈爾賓으로向할터이라는데氏는觀光次로旅行한다云하나氏의主要目的은東淸鐵道附屬地回收問題를調查키爲함이라더라(奉天卅一日發)

馬賊三千을引率

仲秋節叛亂惹起

自治軍總司令楊夢齡은頒守公署에逮捕되야銃殺된바其子楊家隆은其父의意思를繼承하야報讎코저目下吉林省撫松、舒蘭、五常三縣下의馬賊三千餘名을引率하고自稱自治都督이라하며來八月十五日의仲秋節을期하야叛亂코저計畫中이라더라(吉林卅一日發)

카氏北京着

『카라한』氏는三十一日奉天發北京으로向할豫定이라더라(北京卅一日發)

停頓狀態의新內閣

一日中에는閣員確定乎

山本內閣의組織은既爲後藤、犬養、田中、田等基本閣員의決定을告하고將次第二段의閣員을決定코자하다가意外에稍히停滯케되엿는바一般閣員에就하야는第一後藤氏에게其意中의人物이有하니即有松英義、仲小路廉二氏는豫히閣員으로後藤氏의心中에內定한바이며又田中義一大將도入閣을承諾하는同時에閣員如何에依하야는拒絕한다는條件을附한形便이나一方閣員의首班이될山本伯에게도其意中의人物이有할것은勿論이오傲岸한山本伯으로는基本閣員以外는殆히一瀉千里로써自己意思에依하야決定코저하라든것인데意外에玆에後藤子가腹案을藏함에際會하야비르소伯의當初의腹案이든研究會幹部의拉致에失敗하고大木鐵相의留任을勸說하다가此亦成事치못하고只今岡野法相의留任을百方으로勸說하는模樣이나今夜까지에는아직留任은不明한바如何間目下確定한閣員은五名뿐임으로殘餘의五名은此를今明日中에選定을終了치아니하면不可하며又後藤子가推薦한人物을幾名이나入閣케할問題는注目할만한問題인데山本派의參謀側에서는後藤子가推薦한人物은一名을爲限하고그以上은容認치아니할意嚮인模樣으로逐非秘書官『山之內、樺山等薩派』의才子等은三十一日夜深後外지財部海相邸에서協議하고自動車를八方으로驅馳하야活動이頗히猛烈하며一方後藤子側에서는山本伯의態度에就하야多少間不滿히思하는觀도有하야一時는後藤子도頗히不平이든模樣이엿스나古島一雄氏는犬養氏의使者로其間의調停을試함과如하야三十一日午後의形勢는稍히山本內閣에게惡化된模樣이엿스나夜深後에形勢가緩和되야一日에至하면急轉直下의勢로山本內閣의完成을告케될는지도未知인形勢로變한바此를要컨대完成을告할만한內閣의人員은大體로後藤子의獻策에近似한것일것이라더라(三十一日午後十一時九十九分東京發)

組織停頓의內面

=閣員推薦에關하야後藤子와田男間에衝突이有하야後藤子가入閣을拒絕한故로山本伯은方今調停에苦心中임으로組閣運動은因하야停頓되얏더라(東京電)

閣員大概決定

=山本內閣의閣員은大略左와如히決定되얏는대親任式은二日午前十時宮中에서擧行하리라더라(一日午前十時五分東京發)

總理兼外務大臣	山本權兵衛
內務大臣	後藤新平
大藏大臣	勝田主計
海軍大臣(留任)	財部彪
陸軍大臣	田中義一
司法大臣	平沼騏一郎
文部大臣	岡野敬次郎
農商務大臣	田健治郎
遞信大臣	犬養毅
鐵道大臣	山之內一次
內閣書記官長	樺山資英

警視總監候補

新內閣의政務官中警視總監의候補者로는前警保局長湯池孝平氏現旅本縣知事岡田忠彥氏等諸氏說이高하며警保局長은現警保局長後藤文夫氏를留任케할希望인듯하나萬一同氏가留任할意思가無할時에는地方長官中으로부터選擇하리라더라(東京電)

新內閣과地方官

大更迭未免乎

山本內閣은成立後直時次官以下各政務官을交迭하고更히各省官吏와地方長官도異動하야目前에臨迫한府縣會議員選擧에準備코저한다는데更迭調查에着手하얏다하며組閣後第一着手로行할地方官更迭은其範圍가頗히廣汎할模樣이더라(東京電)

國際大航空港

實現促進

東京、大阪、福岡附近에航空局長은昨年七月國際條約의効力發生과共히會社全國에航空港의計畫을國際飛行場에充하기로하야頗々히其實現에努力中인바其豫定地는東京附近、大阪附近、福岡附近(又는朝鮮)의三個所인데就中大阪은勝頭에着手하기로한바其基地는築港陸軍飛行場을擴張하야此에充코저目下委員이出張中이며國際飛行場의內容은十萬坪以上의非地에發着場練習場格納庫工場稅關病院夜間照明無線電信電話等設備를要하야來港한外國航空機는國際航空條約에示한『外國의飛行機가國內에最初로着陸코자할에는반다시國際飛行場을選擇할지며且最後離陸의際에도同樣이며且最初의着陸地와最後의離陸地와는同一한場所아니면不可함』의適用을受하기로하얏스나禁止區域外의場所는其國飛行機와同樣으로自由로上空에飛行함을得하기로하얏다더라(東京電)

工場勞働

一般狀況

朝鮮內에서十八歲以上勞働者를使用하는會社及工場은昨年七月末當局에서調查한바에依하면六百六十四個所이며從業勞働者數는男三萬八千百七十三人女九千八百七十八人合計四萬八千四十三人인대此를年齡別로示하면左와如하더라

十歲未滿	十七人
十二歲未滿	二百九十一人
十五歲未滿	四千一百卅八人
廿歲未滿	九千五百四十八人
五十歲未滿	一萬四千六百六十一人
六十歲未滿	八百七十九人
六十歲以上	四十四人

十二歲未滿의幼年이二百九十餘名이有한바最히簡易한作業에從事함으로保健上에危懼는少하나教育上으로는寒心할바이며十二歲以上十五歲未滿의

年少勞働

者中에는女子가男子보다多한바此는勞銀에對比하야能率이高하며從業成績이良好함으로需要가多함에因함일지요一般勞働時間은漸次制限을實施하는傾向이有하야大正七年末에는勞働時間이一日平均十時間을不下하얏스나昨年調查에는九時間으로減少하얏는데財界의不況以來就業時間을短縮할뿐아니라公休日도增加하는傾向이有함은企業者가作業의自然短縮을企圖하야生產을減少하고市價의下落을防함과同時에勞働者에對한賃銀의支拂을節減함에不外한것이라勞働者의勞銀은

男女別과

業務如何에依하야一律이아니나平均으로日本人은一日一圓十五錢朝鮮人은一圓十二錢中國人은一圓二十四錢인데此等勞銀은大正五年初夏부터漸騰의形勢를示하얏스나大正九年四月부터不景氣의襲來로下落한以後一高一低를示하얏스나漸次低下하는趨勢이며勞働者의教育程度를見하면四萬八千四十三人中中等學校卒業者는百七十八人이요半途退學者는三百三十九人이며普通學校卒業者는四千九百六十九人이요半途退學者는三千六百三十三人이며書堂修學者는一萬一千四百五十二人無教育者는二萬七千四百八十人인바十年以上勤續者는一千九十四人에不過하고比較的

永年勤續

者는工業及通運業에從事하는勞働者가多하고雜業勞働者는少하며勞働者의福利를圖하고能率增進을目的으로하는者가少한바待遇에關한施設을見하면左와如하더라

寄宿舍又는舍宅의設備가有한者一八九個所▲觀劇野遊會等酒肴料를給與하는者一八六個所▲修養施設이有한者四〇個所▲囑託醫又는家族救濟療所等의施設이有한者一二一個所▲傷病手當利益配當勤續年金制度의施設이有한者五〇五個所▲共濟組合購買組合規約貯金의施設이有한者一〇三個所

同盟罷業

次에大正八年부터十一年에至하는間의同盟罷業總件數는二百四十八件이요參加人員은一萬八千九百五十二人인데其中에朝鮮人이一萬七千二百四十四人이요日本人이九百八十三人中國人이六百八十五人이더라

朝鮮感化院令

三日附公布

九月三日附로朝鮮總督府制令第十二號로明治四十四年法律第三十號第一條及第二條에依하야朝鮮感化院令을公布할터인대全文은左와如하더라

第一條 朝鮮總督은左의各號에該當한者를感化院에入院케함
一、年齡八歲以上十八歲未滿의者로不良行爲를하고又는不良行爲를할虞가有하며且適當히親權을行할者가無한時
二、十八歲未滿의者로親權者又는後見者가入院을出願한者
三、裁判所의許可를經하야懲戒에入할者

第二條 入院者의在院은二十三歲를超함을不得함但前條第三號에該當한者는此限에不在함

第三條 感化院長은朝鮮總督의認可를受하야在院者에對하야條件을指定하야假退院을許함을得함
假退院者指定의條件에違反한時는感化院長은朝鮮總督의認可를受하야假退院을取消함을得함

第四條 感化院長은在院者及假退院者에對하야親權을行함
在院者又는假退院者의父母又는後見人은此等의者에對하야親權又는後見을行함을不得함
第一條第二號及第三號에該當한者의財產의管理戶主權의行使及相續에關한事項에對하야는前二項의規定을適用치아니함

第五條 感化院長은朝鮮總督의定한바에依하야在院者에對하야必要한檢束을加함을得함

第六條 行政廳은第一條第一號에該當한者가有하다認定한時는朝鮮總督에告함이可하며如斯한境遇에假留置함을得함
前項留置期間은十日을超함을不得함

第七條 在院者의親族又는後見人은在院者의退院을朝鮮總督에게出願함을得함
前項出願에對한許可를得치못한在院者에關하야는六個月을經過치아니하면退院을出願함을不得함

第八條 朝鮮總督은在院者의扶養義務者로在院費의全部又는一部를徵收함을得함
前項의費用을指定의期間內에納付치아니한者에對하야는國稅徵收의例에依하야此를處分함을得함

附則

本令은大正十二年十月一日로부터此를施行함

感化院設計

內容

總督府의新計劃으로朝鮮의幼年犯罪者를感化케하기爲하야感化院을設立하고그에相當한法規를發布하얏는바그內容은[illegible]豫算內外로院長一人教師二人外에若干의雇員을置하야進行할터이라하며建物의收容力은百名에達하리라하고感化院에收容할幼年의標準은日本內地에잇서서도一定하지못할뿐아니라事實上어더한標準을定하기어려운바此에收容한다하면그本意의目的을達하기難한点도不無함으로特別한標準을定하지아니한다는바大概는日本內地에서施行한標準으로朝鮮에서도實施할意嚮으로總督府社會課에서는各道에通牒을發하얏더라 그人選에關하야矢島總督府社會課長은語하되日本內地에서도여러가지方面에서人物을擧하는者가有하나此事業은他事業과性質이特殊함으로朝鮮語에不自由한者로는그所期의目的을達하지못할지니적어도感化院의院長은朝鮮語에能通한사람이適當할줄로믿는다그럼아니라言語도自由로通하지못하는者가感化事業에當한다함은非理에不合한일이라고아니할수업다云々하면서隱然히人選은朝鮮에서하겟다는意를洩하더라

最近荷動不振과 前途如何

朝鮮鐵道最近荷動狀態가不振한바京城局에서는最近荷動狀態가不振하는一因은水害로因하야荷物不振한狀態인데此에關하야京城局某當局者는語하야曰

最近荷動狀態가不振하는一回水害에因한結果로悲觀할바이라할을得할지라大體又期間不振期이라할것은一般的不況의原因이며特히金融界가極度로緊縮한狀態에있는바此는荷動을梗塞하는影響이多할지라

朝鮮의主要한貨物을見하면生活必需品인米及其以外에는工業原料等이라此等은常히少하나此는商動狀態에도當히影響이有하야自然比消費者는極히少한바此此되는極度의年度는金融關係로一層이多大한影響을示한바如한理由로生產額이少하나今年度는金融關係도一層遲延되는傾向이有하며出荷及又는移入移出共히例年보다不振한바大體로生活必需品의入荷도中途에는不況을呈하는事가有하야도結局何等의變異가無하게될이常例이며同時에地方

在米

도今日外지의出廻狀況으로見할時는尙今三分의一은有하다見할情態인대此等의在米는諸種의關係로出廻할터인즉大體로는悲觀할必要는無할바이나一般貨物도漸次夏期의終了와共히秋期에入할터임으로二十日以後에는相當한盛況을呈하리라思한다云々

輸移入小包物

京城局의七月中

七月中京城郵便局取扱에關한輸入及移入小包郵便物數는統計二萬二千四十九個保有品價額은二百二十四萬一千六百四圓八十八錢인데其差出地名을擧하면如左

差出地	小包	保有品價額	備考
日本內地	[illegible]	[illegible]	移入
關東州 租借地	[illegible]	[illegible]	輸入
滿洲	[illegible]	[illegible]	同
中國	[illegible]	[illegible]	同
米國	[illegible]	[illegible]	同
英國	一九	[illegible]	同
佛國	三	[illegible]	同
카나다	二	[illegible]	同
獨逸	五	[illegible]	同
香港	[illegible]	[illegible]	同
合計	[illegible]	[illegible]	

京畿大豆作況

京畿道의大豆는播種後旱魃로生育에阻害가有하얏스나六月上旬의降雨로回復되야生育이順調이엿스며七月下旬及八月上旬에降雨로多少被害가有하얏스나目下는頗히良好한바其實收高는昨年에比하야增收하리라하며收穫豫想高는四八四、六三九石인대前年實收高四八六、〇七八石에比하면四厘三毛의增加이라더라

客月手形交換

八月中京城手形交換所交換高는枚數九九、二二八枚 金額[illegible]인바前月에比하야枚數는二千四百七十四枚金額은二百九十九萬二千一百七十八圓이減少하얏다

租稅申告手續簡略

京畿道에서는稅務行政의簡捷을圖키爲하야今回左記申告又는申請은口頭로受理할旨를管下各府郡에對하야通牒을發하얏다더라
一、地稅令施行規則土地臺帳規則等에依한未登記土地所有者의氏名又는名稱變更의申告(變更의事實을證

教育會評議員會

朝鮮教育會는來四月에其組織을變更하고議長의代議員會及總會를開催하야會務의進行中인바今回第九條第三項에依하야第一回評議員會를左記諸氏에게開催하얏스며同評議員會는來五日午後一時부터總督府學務局內에서開催하고追加豫算及其他案件을附議한다더라

▲高橋濱吉(京城師範學校長)▲赤木萬二郎(京城醫學專門學校長)▲高元勳(普成專門學校長)▲金讚泳(中央高等普通學校設立者)▲岡田公[illegible](京城工業專門學校教務主任)▲石原[illegible](西大門小學校長)▲[illegible](壽松洞普通學校長)▲外에各道教育會長十三名

三、朝鮮煙草專賣令施行規則에依한耕作許可申請書의依托變更申請及耕作廢止又는休止申告
四、酒稅令、同施行規則에依한[illegible]製造又는[illegible]申告
五、[illegible]

『開闢』九月號押收

雜誌『開闢』九月號는記事中忌諱에抵觸되는點이잇다하야昨一日發行即時로發賣禁止를當하얏다는데[illegible]

關釜聯絡船缺航

關釜聯絡船은風波로三十一日朝及夜의釜山發便은缺航되얏다더라

●光化門新館落成 [illegible]에서는府內東崇洞百二十八番地에會館을新定하얏슴으로來五日午後四時부터新館落成式을擧行한다더라

消息

▲總督英艦隊招待 齋藤總督은一日午前九時三十分列車로入京한英國巡洋艦隊司令官『에·켓비손』氏以下四名을官邸로招待午餐을開催
▲有吉政務總監 三十一日午前十時三十分京城驛發仁川에到着하야共仙臺艦隊를觀察午後五時二十五分歸京
▲許憲氏(辯護士)咸北地方에旅行中이든바三十一日歸京
▲片山義勝氏(朝鮮銀行理事)遼東中이든바大連에서途次二日入京

橫說竪說

▲今二日은日本의所謂『二百十日』이라하야米穀關係者의神經이過敏하야오는날이오山本內閣이正式으로成立한다는날이오第一日曜日으로『國際青年節』이오衆에朝鮮總督府의四週年紀念日이라든가하는를맞든南大門驛頭에爆彈의洗禮를맞든날이만흔날이로군▲閣僚選擇에苦心中이든山本伯의『聯閣』도今日에는成立되는模樣이나決定된閣員이라고前朝外지의東京電을보면當初에標榜하든所謂『擧國一致內閣』은影子도업시고純全한超然內閣이되고말앗다▲從來에도所謂超然內閣이라는것이紛々히出現하얏스나外形만超然內閣이오事實은大政黨과握手妥協하지아니한이업섯는대今番과가치何等의有力한政黨에超然한內閣은近來에稀有하다此를名하야『超超然內閣』이라할가▲仁川의生命이라는米豆取引所를애여오라고京城에米穀取引所設立運動이잇어낫다此事務所이如何히進展될는지商界의興味잇는一事件

今日本紙六面

商況

◎鮮銀行券(三十一日)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保證準備 [illegible]

◎日銀帳尻(十九日)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保證外發行 [illegible]
貸出高 [illegible]

◎京城手形交換(一日)
枚數 [illegible]
金額 [illegible]

◎日本金利(三十一日)
金利 [illegible]

外國經濟電報(一日發)

倫敦銀塊 [illegible]
紐育銀塊 [illegible]
紐育棉花 [illegible]

大阪株式(一日前場)

株名	寄付	大引
大株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鐘紡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商船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郵船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東紡	[illegible]	[illegible]
日魯	[illegible]	[illegible]
北取	[illegible]	[illegible]

大阪株式延取引

株式市場

京取保勢 諸株皆不振

一日京取市場에는各地氣配不振으로京取는十六圓六十七錢이오大新은七十一圓七十錢으로報道되얏고本場人氣는依然히軟弱하얏다[illegible]

後場京取高騰

[illegible]

京株賣買高

短期取引

乙部 [illegible]
甲部 一千二百五十枚

京取仲買懇談會

京取市場仲買人組合에서는一日[illegible]

京株賣買價(一日)

株名	前場當限	前場先限	後場當限	後場先限
京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鮮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殖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實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商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韓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鮮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瓦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釜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知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龍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金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南鮮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滿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勸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殖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漢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短期取引(一日)

株名	前場	後場
大新	[illegible]	[illegible]
仁取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朝紡	[illegible]	[illegible]
中鐵新	[illegible]	[illegible]
拓新	[illegible]	[illegible]
安取	[illegible]	[illegible]

◎橫濱生糸(一日)
現物 [illegible]
當限 [illegible]
先限 [illegible]

各地穀物市場

大阪三品(一日前場)

	寄付	大引
九月	二三八、九〇	二三八、二〇
十月	二三〇、二〇	二二九、九〇
十一月	二二九、〇〇	二二九、〇〇
十二月	二二八、〇〇	二二八、〇〇
一月	二二七、〇〇	二二六、九〇
二月	二二七、〇〇	二二七、〇〇
三月	二二七、〇〇	二二六、九〇

釜山

九月中 [illegible] 十月中 [illegible]

大邱

九月中 [illegible] 十月中 [illegible]

群山

九月中 [illegible] 十月中 [illegible]

仁川期米市場

新貨會散騷

仁川期米市場에서는[illegible]

仲買店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illegible]
電話 一一〇 八五三

一各地商況은如左하얏더라
大阪 四五十丁下
[illegible]

病者를亂打하야

[illegible]로의원함으로 두손을 결박하야 로구타한것이라더라(평양)

계집일흔

[illegible]두엇든바 당일동리신직흔(申稷)[illegible]

自轉車와衝突

한사람은중상

[illegible]

모히密賣者

[illegible]

賭博軍檢擧

[illegible]

橫領한面會計

[illegible]

ClibPDF - www.fastio.com

◇떠나가는하와이동포◇

別淚에저진 昨朝의京城驛

가는사람보내는사람손길을 맛잡고잘가거라잘잇거라의

簡單한人事조차嗚咽한 布哇同胞送別의한場面

젼후두달동안을 긔차로 긔선으로 고국산천을편답하며 져츠러준녀다에 눈물도섞리고 다뜻한환영에 우슴도쳐며 간곳마다 속될엄는 청을드리여오든하와이학생단일동은 맛즘내 예뎡과가치 작일밤상오십시 경셩역을 향하야 출발하고마랏다 환영회의위원일동을 의시하야 각단톄의대표자와 밋학생일동의 친족이되는 남녀송별객이 무려이백명에이르러 서로서로 지친의손을잡고 차마 써러지지를못하야

다쳐오는 발차시간을 압헤두고 밤늘해오며 하염업는샤운한눈물을 흘니기 시작하더니 마츰내 긔차가 써날림시하야는 가는사람은 차안에셔손을내어밀고보내는사람은 『잘잇소』 『잘가오』 에손을잡아 『잘잇소』 『잘가오』 !소리도 오름에막히고 목에걸녀서 말을이루지못하며 보내는사람의눈물! 가는사람의 눈물만! 모-든화소면을대신하야섯다 하와이학생일동은 번거손을드러 셧투른어조로 열경에넘치는소리를질너

『이런만동포만세』!

를부르매 보내는사람들 편에셔는즉시

『하와이동포만세』!

를불넛스며 하와이 긔독학원의 교사로 총합되야 하와이학생을 과합쎄가는 리화학당대학부 교사림배쉐(林培世)양늘친송자는 뎡동례배당유지의밋하교관계자들의권별가도또한섭섭바삐찬한 긔운을더하야섯다 발차시간이되야 산호가늘녀우매 마츰내참고참앗든석별의 애회는 일시에폭발이되야만장에 곡셩이 이러나니그비참한광경은참으로긔록할말이업섯다 마음업는긔차는남을향하야 다름질을시작하니 피차에흔드는 모자!손수건!은 신부에서 긔차가 보이지안코 나붓기어 숫업는석별의정은국도에올닛섯다

먹조타!

이것이어린학생의늣긴감상이오

경셩을떠나는녀자감독김노듸양은말하되 젼후두달동안을두고 십삼도 각디로다니며 몸에넘치도록 동정을밧은것은 무슨말슴으로 감사할지 — 도로혀 고맙든 말슴을 하는것이 서운할줄로 밋고그져 감격만할뿐이올시다 더욱히 하와이에서나서 하와이에서자라나서 몃속에왕래하든 고국생늘 처음밤케되얏든 일반학생에게 드른감상은 다만한마듸로『먹조타』! 한소리뿐이엇슴니다 어린 가슴에

『먹 조타!』

란소리가나도록 승여든 고국의 산천과동포의 사랑은 얼마나아 반가운것은 소식이 이번에대일 바님을 맛나뵈온것과 녀자사회의현상이 뜻든바보다는매오진보된것이 엇슴니다 다행히 다수한 공익을 엇어가게되얏스니 모국동포의 따뜻한정리를 보밧아열심으로 교육사업에 충실하야 그것으로써 모든감사례를 대신할가함니다 말을못맛치고 눈물을흘니엇다

迎秋門線電車는

宮墻을헐고十字閣뒤로

광화문압돌란간도일부는헐리게될모양이라고

경셩뎐긔회사(京電)에서새로광화문(光化門)에서 영추문(迎秋門)가지의 뎐차를부셜한다함은 작일 보도한바어니와 셜계내용는대강듯건대 경긔도텽(京畿道廳)압헤서 광화문압긔러 한갈 단선(單線)으로영추문까지이르게하는것인대 연장은 삼백륙십여간이며 총경비는 이만원가량이나되는바 현재의 길모양대로 뎐차길을 내이려하면 길구비가 며더군데가되며 뎐차의운뎐이거북할뿐만아니라 궁장(宮墻)의서십자각(西十字閣)부근은 길도좁고 또는 구비가너무심하야 궁장을 그대루둔다하면 그부근일가를 훼폐하여야할터인데 이가치함은 그곳주민에게 막대한손해가잇슬뿐만아니라경비도 더드는터이므로총독부당국과 교섭한결과 서십자각도부터 광화문쪽으로오십간(間) 영추문쪽으로 열간가리의 궁장을문허버리게 되얏스며 광화문압헤잇는돌란간(石欄干)도다소 헐릴터인데 이에대한 비용는 경성부에서 담당하게되엿다는데 공사는 각관계당국의 량해가 잇슴으로 금명간에곳착수하야 될수잇는대로 부업품공진회(副業品共進會)가개최되기전에완성하야 일반의 편리를도모할작뎡이라더라

將來秋成門까지

그편으로는학교도만코 교통이복잡함으로이왕부터생각하여오든계획

이에대하야 경셩부윤(府尹)는 말하되 그는 비용를경셩부에서 담당하기로 하것은사실이올시다 경비가 얼마나뒤지는 아직확뎡하지 아니하얏스나다만는 궁장을헐고 다시경복궁(慶福宮)쪽으로 조고마한 담을쌓어야 할터임으로(장래에는 입세야할것이지마는) 적지아니한것이올시다 그런데 이번뎐차길은 특히공진회를위하야 부설하는듯이 말하는이도 잇는듯함니다마는 결코그런것이 아니올시다 원래 계획은벌서부터 잇든터이외다 원래계획으로말하면 영추문은 오히려 추성문(秋成門)부근까지 하려든것 이외다 실상그부근에는 데이고보(第二高普)부진명녀자고보(進明女子高普)칭운 매동(梅洞)등 보통학교가잇슴으로 교통이 매우복잡하게되엿슴니다 그런데 종래교통긔관이 불완전하야 일반의불편이 막심함으로 부에서도 여러가지로 생각하든중에 경편에서 그곳에 뎐차를 부설할계획이잇고 겸하야공진회가 열니게됨에 이계획를타서 그곳의교통긔관을 완비코져하야 도와줌에 불과한것이올시다는 의미로말하더라

各種標本을備置

無線電信을爲始하야

하고자미잇는중에서유익한지식을엇도록힘쓰는아동실 오젼에는가슴을식일터이다

경셩도서관에서 새로히 아동도서관(兒童圖書館)을 설비하고 작일부터 개관하게 되엿다함은 임의 보도되엿거니와 작일오후 한시부터 새로생긴 아동도서관은 십이삼세의어린동모를 맛게되엿다 경쇄한도서관안에는 장래 수만흔소년소녀의 심정을길너줄 고흔책이만타 여러가지 서책이외 에 모든긔치를 실험하는표본이 만흔중 생리해부(生理解剖)의 그림은 사람의 몸이 엇더케된것을 일일히그리엇고 식물(植物)그림은 각식풀을 고흔빗으로 여실하게그리엇스며 동물그림는 각식즘승늘그리엇고 무선뎐신(無線電信)표본은따로쎄여노흔두긔계가한편에 노힌긔계를따라 쌩々도는밤 울리며 뎐긔를따라신호(信號)가 동귀,『쿵발가』든 뎐등에불이 기계를를면커지는것이든지 롤을쇠리면조고만긔차가수증긔로바휘를 눈으로아라볼새업시 돌리든것, 상이공중에서 도라가든것,쵸고맛케만든균합 어엿보고 자미잇는작란감 가든면서도 유의잇는것이만터라 간々히류정긔로

소년군악 을아뢰니 고조선노레를들리어취미잇는중에부지중공부를 하게한다는데 매일 오후부터는 엇던어린아해든지 돈안밧고 드린다한즉 자녀를둔부모는 가서놀고배호게함이 조켓고 오전에는 빈한하야보통학교에 드리가지못한아해들을거두어소학교육을가릇치어이년만에 졸업을하게할터이라더라

東京以西 電信不通

농미디방디진으로

본동미디바(濃尾地方)에큰디진이이러나 동경이서의 뎐신뎐화는 전부불통되엿더라(대판뎐보)

富山地方降雹

피해는조사중

본부사현 서여파동려파군(富士縣西礪波東礪波郡)에는 거월삼십일일오후세시경 부터 우박(雹)이와서 수십년래에 쳐음되는밤반큼한 우박이 내렷다는데 피해는조사중이라더라(부산뎐)

京城驛前에서 電車脫線

가든자리에서 이번이두번재

재작일오후두시경에 경셩역(京城驛)압헤서 또다시일백삼십호뎐차가 탈선이되야 대략삼십분동안이나 교통이 끈어지엇는데 다행히 인축의사상은업엇다더라

萬餘圓을

사취하고잡혀

시내인의동(仁義洞)일백삼십이번디에사는최홍식(崔弘植)(ㅊ)과포천군 가천면뎡교리(抱川郡加正面町橋里)일백 칠십구번디에사는리승규(李承圭)(ㅊ)와양주군별내면 고정리(楊州郡別內面高正里)이백사십구번디에 사는뎡양갑(鄭陽甲)(ㅊ)외삼인은 방금 양주경찰서에잡히어 엄중한취조를 밧는중인데 이제그내용를들은즉 그들은 서로공모하야가지고 교묘한수단으로써 양주군시둔면 공원리(柴屯面公元里)에사는김석산(金石山)외 수명을쇠이어 일만이천여원의 막대한금원을사기한사실이라더라

輪下驚魂의五歲兒

뎐차길을건너가다가 참혹히갈려죽은아이

現場의慘狀은目不忍見

뎐차가또사람을갈아죽이엇다재작(三十一日)오후시오십분경에 신룡산을떠나 동대문으로향하든데오십오호뎐차가종로삼뎡목 단성사압뎡류장을 떠나대묘뎡류장을향하는중에 선로부근에서놀든시내수은동(授恩洞)일백이십번디 김학식(金鶴植)씨의맛녀딸명숙(明淑)(ㅍ)이가 별안간 선로를가로건느랴 다가 마츰내 뎐차바퀴밋헤 드러서 뎐차는 뎡지할여유도 업시무참하게 머리를 갈니어서죽자하고마랏다 앗가치 어엿부든너방머리는 조각조각 쎄어진두개골과함의 원한을머금은는 붉은피에엉키어 선로부근을 물드리고마랏다 이참상을 목도한승객과통행하든사람들은 임게히소리를질너

『운뎐수를죽여라! 뎐차를부시어라!』

하며 마침 야시에나온 군중은 삽시간에모디어 한참소동을 이르키매 운뎐수 로경관(盧京官)(ㅍ)과차장은 뎐차를바리고 일시 도주를하얏스며 소관종로서에서는 호천(戶川)경사와 디방법원에서는 사뎐(寺田)검사가 현장에급행하야 검시를맛치고시테는즉시그부친에게내여주고운뎐수는불구속으로사실만취조중이며대운뎐수의과실의안인듯하다하며명숙이는임의이세상을 떠난 신파신축좌당갑도산(金陶山)군의 누의로 그부모는망내쌀 한아를 애지중지하든터이엇다는데 그모친 박경녀 (朴姓女)는 밤을새어 통곡을하야 목이 수인 소리로 보는사람마다 『이원수를어서갑하주시오』하는말에 시경에서는 ...

驛屯土小作人

無理히

빗는다고진졍

강원도회양군하북면(江原道淮陽郡下北面)의역둔토소작인(驛屯土小作人)일백사십여명이련명날인한 진정서를 총독부당국에 데출하려고 대표자 송진봉(宋鎭鳳)씨가 상경하야 작일에 세무과당(稅務課長)을방문하얏다는데 내용을듯건대 지난매청긔년에 역둔토 소작료(小作料)를 사정할째에 당시의군수심의승(沈宜昇)씨가 무슨까닭 인지 쌀한말에 시가보다일원 공한말에 삼십륙전식 더매여서(원래소작료는산출되는 곡식의시가로셔표준함) 十차한 소작인에게서 수천원의 부당한소작료를징수하얏섯다는대 당시에소작인들은 이에반대하야 군령과도령에 루차진정하얏섯스나 당국자의태도는 갑사시압수 하얏다는데 구류떠부는 특강경하야『쉬커든 역둔토를도로내여노흐라』는등 위협은고사하고 경찰당국에서까지 간섭을 하고 ... 지하엿다더라

야 소작인들에어울한사정을드더주지아니함으로 역둔토는 서면으로 수차총독부에까지 진정하얏스나 이때까지 하등의처치가 업슴으로 작일 즉접으로 대표자가 상경하것이라는데 세무과당국은 그때의사세가 여하하얏는지는 총독부보고에의지하야처단하얏슴뿐이란말과 『인제다 결말이난사실』이란말과엇지하얏든지 총독부에서 ... 러나 소작인들도 여러가지를 신중히 조사하야가지고 하라는등에 애매한말로 대답하얏다는데 소작인들은 어데까지든지 부당한소작료를 도로 차즐작뎡이라더라

牛腹에서一萬圓

소한마리에우황네근이들어

수일전간도룡정촌(間島龍井村)에사는김상무(金尚武)씨의비명은중국인츅에서 소한마리를사서긔웻에사가찹아먹으랴고 배를쨋엿든바『우황』네근이나와서 ...

青年會를 青年黨

으로교처자는 텬도교청년회

텬도교청년회(天道教靑年會)는 거금오년젼긔미(己未)년삼월이일에창립한이래 전국각처에 다수한지회를두고 그교회의 종지를 선전하는동시에 우리의 문화운동(文化運動)에도 여러가지로진력하얏는데 이번에 그회의일홈을텬도교청년당(天道教靑年黨)이라고 곳치기위하야 금이일정오부터 경운동그교회에서 총회를열게되는데 그회에서는 다음과가튼주의강령(主義綱領)으로사업을 진행한다하며 당원이되는데는 일곱가지의 조건을 실행하여야된다더라

◇主義 地上天國의建設

◇綱領 사람性自然에合하는새制度의實現

事人如天의精神에合하는새倫理의樹立

◇約束 黨員은黨의一切決議에絶對로服從할것

軍糧運搬中에 工兵一名溺死

발동긔가병나서

룡산(龍山)에잇는공병이십대대뎨이중대일등졸(工兵二十大隊第二中隊一等卒) 신궁현(新宮顯)(ㅊ)이가 지난삼십일오전열두시경에 광주군부리도(廣州郡浮里島)부근에서군량(軍糧)을 운반하다가발동선(發動船)에고장이생기어 물속에 잠기어그만 죽어바리엿는데 작일오전 여섯시경에시테는발견되얏다더라

李王殿下 李堈公李鍝公

서선수해에 오백원하사

서선디방 수해에대하야 리왕뎐하(李王殿下) 리강공(李堈公)리우공(李鍝公) 뎐하에서는 작일에 금 오백원을하사하셧다는데 총독부 에서는그 배부 방법을결뎡한후에 수해민에 보낼터이라 더라

龍井村에서 水害救濟歌劇

각청년회주최 각신문의후원

북간도룡정촌(北間島龍井村)에서는 서선수해를 구제할목뎍으로룡정(龍井)녀자청년회(女子靑年會) 중앙구락부(中央俱樂部)의주최와 두만신보(豆滿新報) 조선일보(朝日)동아일보(東日)세신문사의후원으로 오는십일 십일일의이틀동안에 가극대회(歌劇大會)를개최한다더라(간도뎐보)

佛教濟衆院

준공개업되엿다

시내뎡동(貞洞)불교중앙포교소안에 그간신축중이든 불교제중원(佛敎濟衆院)은그부준공이되야 작일부터 개업을하고 외과(外科)내과(內科) 조산과(助産科)의 일반병자를치료한다는데 병실은능히백인을수용할만하다하며 압흐로는 무료진찰소를개설하겟스며 작일부터 일주일동안은개업피로로무료진찰을한다더라

서울靑年會員 十三名檢束

허가업시선전비라를돌녓다는혐의로

작일일 하오한시반에시내 중학동에잇는 서울청년회 에서당채극(唐彩極)씨외 열두사람은 종로경찰서에 검거되야 취조중인데사건의 내용은금이일 국제청년데 (國際靑年日)의 선뎐문을배부한 중에불온한문구가잇슴뿐아니라 허가도업시 배부한것이라고 ...

巡廻劇團을

만들고자사긔로 비용을만들엇다

참々시잔하야가는 조선 극계의 남당한 진흥방면으로 말하는 사긔사건이 생기엿다 시내돈의동(敦義洞)일백삼십칠번디 백주용(白柱鏞)(ㅊ)봉익동 (鳳翼洞)삼십삼번디 홍순우(洪淳佑)(ㅊ) 등두명은 다른배우 세사람과극계의 조략을데라 거의쇠도티일로 끈판중 『디방순회 소년국단』이라는단톄를 조직하고우선춘천(春川) 디방으로 흥행을 하려나려가랴 하얏스나 로비가 업슴으로 마츰내극단불과 인연이깁흔 종로통 삼뎡목일백구번디려관업 리운선(李雲善)의집 흥행사증하고 동려관에 시장리를 외상으로갓다가 다시파라서로비로 충용한죄상이 발각되야 그간소관종로서에서 취조를밧든중 작일에 일건서류와함께 두명은 검사국으로압송되얏더라

琿春城內戒嚴

마적이온다는말을듯고

모처에온졍보에의하면 중국혼춘(琿春)에잇는양(楊)혹군 단당는혹산(老黑山)방면의마적이 차차남편으로 나려온다는 말을듯고 그들의행동을 경계하기의하야 팔월삼십일부터 십월십일까지 긔한뎡하야가지고 혼춘경내에 계엄령을포고한후 경계를개시하엿다더라

日中不決의 平壤罷工問題

일부고주의완명한태도는 동업자간에도반대가만타

평양양말직공 파업단은 그형세가날로 궁악하게되야 평양다바조합에 뭇지하얏스나 고주들의 한두총거리가 되엿는데 임의의신사는 최종까지 양해하기어렵게되야 ... 것갓기도하고 다시해산하면 ... 는것을 직공의 요구대로할수업다는 애매한 사정가치로 ... 할만치 되엿슴으로 직공조합에서는 차라리 조합원 전부의 의사를

엇지할줄 음모르든 중이

며동일오후 고주조합에서는 진급총회를 개최하고 선후책을토의케되엿는데 맨-고주들은 한상직공의 요구중『바눈(針)』파가튼문데는 절대로 듯지못한다고 말하얏스나 상수구리 (上水口里) 신양리(新陽里) 신성공당(新成工廠)파 관성리(館城里)관서공장(關西工場)의 세공장에서는 최초부터이문데를트키고다시이문데를 속히해결치못하게된 원은 소위고주조합이란것이 잇기때문에 보다직공의 요구를듯고십흔마음이 잇다고하야도 듯지못하게되엿다고 보다

고주조합 에서 란회하기

를선언하얏다는리하야의론이분々하고 의사가 통일치못한가운데이라더라(평양)

들어본후

에최후로단안을 유하고 밤나라는의견으로 시난삼십일일 오후무시 림시총회를개최하고 동맹파업을 한후 잇새까지 진행된사실의경과 보고가잇슨후 일반조합원은 다시 차우고아니 차울것을투표(投票)의다수로결뎡하고그의사를 놀이엇더케해결한다는것은 조선노동총동맹(總新行團部)에일임하기로하얏는대 총진행위원부의의 와하관계획이여하할는지알수업스나조합원들은 최후일도록 차유자는의견이

다수한듯

하다하며 총회에서 뭇표한것은 아직총진행위원부에서시일을기다려 발표할터이라더라(평양)

水害同情金

그후보사에 들어온수해동정금은 여좌

一金 壹圓也 市內橋北洞一〇三番地車熙廷
一金 貳拾圓也 京城府唐珠洞一百六十四番地 千年孝信契
一金 拾圓也 西大門外阿峴里 太光親睦會一同
一金 參拾圓也
一金 貳拾圓也 市內唐珠洞一二四 契員一同
市內內資洞二二六內 契一同

苦學堂은嘉會洞에

경성고학당이 새로히 이사를하게되얏다함은 임의보도한 바어니와 그커소는 견지동시텬교당이아니라가회동(嘉會洞)일백칠십칠번디시텬교당이라하며다수한보결입학지원자를환영한다는데 파뎡은중학뎡도이라더라

◇......모 임......◇

▲조선긔독교 청년련합회 주최로금이일 상오십일시에 뎡동례배당에서 월요설교회(月曜說敎會)를개최한다는데 연데와연사는여좌

일 할 때 李商在

▲종로청년회관 에서는 금이일하오삼시반에 일요강화회(日曜講話會)를개최한다는데 연데와연사는여좌

人類의事變과神의攝理 李舜基

▲수표교례배당에서는금이일오전열한시부터 남감리교감독보애스밥씨의설교동하오팔시는부라만씨설교

◇휴지통

▲조선총독부관 구주에매국시무관 검귀선씨는 구주출당명령을밧아 관비양행에 거드리거리고두일양을들어섯다▲그래서 백림의시가를 작동차우에서몰나보고의긔가양々한관에 엇던조선사람에게 검정퉁을 먹고 지금 병원베드우에서왕々알는중이라나▲사무관령감의 행차이신대독일에서는보호순사도안부췻넌지 또수륙수만리 독일까지가서 륙혈포작란을 하는사람도잇엇는 사람이다 ▲경성부에서는 세금을 잘밧겟다고 시내각우편국소의 집무시간을 늘여가면서 애를썻스나 청천은벽패엿다▲지난삼십일하로동안에 밧은금액이겨우삼백팔십륙원삭김오전밧게아니되엿다나

特製 [illegible]丸
定價 特製二十日分 一劑金三圓 十日分 一劑金一圓五十錢

淋疾 靈効丸
天恩堂大藥房 京城府黃金町一丁目 振替京城七九番

腎氣虛弱한諸位에渴望하든 神秘的奇藥이出來?
補腎滋陽 强壯
振陽源
●健康保持의大秘訣
●主治効能
本舖 滿鮮賣藥商會

元昌針新着▷

바늘 터국
이元昌針은獨逸『부레-멘』市에서바늘만들기로第一有名한『스타렐맨』會社의特製品으로品質이鋼固하야 휘지안코부러지지안이하며 價格은低廉하야 온世界에서 大歡迎을밧는 바늘이외다

●當九月三日부터新映畵大公開
▲米國파라마운트社映畵 人情劇 風景探勝 全一卷
▲米國파라마운트社映畵 西部大活劇 及의光 全七卷
▲米國파라마운트社映畵 人情劇 小牧師 全七卷
▲米國파라마운트社大傑作 人情劇 浮世의常事 全六卷
正喜劇 素人探偵 全五卷
其他喜劇實寫數種
朝鮮劇場 京城府仁寺洞 (電話光九八四番)

西部의勝者 第三十六七八編
▲米國社作品 人情劇 闇路 全五卷
▲米國社作品 友情 全二卷
團成社 京城授恩洞 電話光化門九五九番

協成學校補缺生募集
中等、初等各科若干人 (敦義洞一八三)
出願期日 九月八日外지、試驗九月十日 (電光二三七三)

藝術學院 學員大增募
音樂科、美術科、演劇科 男女學員
開學日字九月五日

感謝廣告
一金二千圓也
共保生命保險株式會社에加入한바 ... 保險金受取人 柳壽馨

學生 帽子
學生帽子五千打爲限하고本價로提供하겟사오니多少를不拘하시고一次注文하심을伏望
▲但地方注文에는代金引換郵便으로迅速酬應하겟습니다
京城府南大門通四丁目十四番地
學生帽子製造都賣部 主 金容漢

生徒募集
京城府貴金町三丁目
京城自動車學校

泣血鳥(읍혈조) (00)

李熙喆作 盧壽鉉畵

서로 부뷔쥐고잇는손이 화끈뎌워옷속에 팔득팔득뛰는 선희의가슴이 고요해지며 조롱박에나는 부덕소리로 그래안으며 조용히 들리엇다
『선희씨 선희씨는 키를 일생의벗으로 생각하지요』
하고 새삼스럽게 말하엿다 선희는 청년의가슴속으로 숨니며드러가는듯하게 몸을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청년의얼굴을 치어다보며
『네―』
하고 대답하엿다 청년은 다시
『그러면……』
하고 무슨말을하랴다가 뚝끈첫는데 그와동시에 선희의몸은청년의품속에 조곰더숨너어 드러가는듯하엿다―피연 청년은 선희를 바자더 쉬려안은것이다
그러나 선희에게는 조곰도불쾌한것이 업섯다 청년이 그러케하는것이 도로혀자긔에게는 말지안는사랑의 표적이 되는것이고 생각할수업는 깃븜이 되는것이엿다
청년의입술이 선희의뺨을 슬처갈때에 선희는 거긔에이청의냄새라는것이 엄마나 더달고 향긔로운것을 지금에야 깨다른듯하엿다 즉선희는모든것을 이커버리고 청년의품속에서만 그대로 죽는날까지 안고십헛다 반년이나전에 그가청운에게 대하야하던말과 또하고커하려든뜻은 지금에 이청년을 맛나다!스러커버리고 만것갓다 그쁜만아니라 그들은이날밤 자긔네들이엇더케되여서 이런곳에와 잇게되엿느냐하는―그것까지도 다이커버리고 아조사랑에 취하야 술취한 사람보다 더의식이몽롱하게된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그러타할지라도 귀신도모르게 이캄캄한데하실에 몸을숨킨 두청년남녀가사랑에 취하야 똑가치가슴을 태우던 그나마에 엇더한일이생것슬것은 짐작하기 어렵지아는일인데……
『나는 인케는당신의안해이애요』
하고 가늘게목에서 떨녀나오는 선희의 말소리는 도로혀가이업시들녓다 그러고그와갓흑히나는 당신의 안해이애요하는선희의 말이 몇번반복될때에청년은다만 『그래요~』늘하고대답할뿐이엿다
이외가치 선희는 지나간첫사랑의상처도 생각할필요업시 다시깃분날을보내게되엿다
맨칠후에 선희는 경찰서에잡히엇다 청년도잡히엇스나 그는 선희가 경성으로 압송이되여가는그날 낙동이 되여 깃봉으로집에 도라와다 그러나 선희가경청서대문감옥으로 넘어갓다는말은 그후에알앗다 한편으로선희는 그후 잡혀올나온동모에게 순일이가 낙엇다는말을듯고 말할수업시깃버하엿다
미결수로 복개월 징역으로 일개년―이러커럭 일년남은 세월을 선희는감옥에서 보내엿다 그동안 그는 생각만흔시간을혹은 한숨가온데서 혹은눈물가온데서혹은원망가온데서보내엿다
선희는 지나간모든일을 눈감고가만히생각하여보앗다생각하면 웬일인지 설은일뿐이다……
더구나 미결수로잇슬때에 켜음한달동안은 날들이 먹는사식을……지긔는 감옥밥을먹고지내던일을 생각하면 생각할때마다 눈물이흘너나왓다 그러고지긔를면회하러오는사람은업고또듯는말이 세상은 역시그러라할것을 이러커럭 하엿입시생각다는밤은 날다다밤마다 선희의눈물을 재촉하는것뿐이엿다
그러나 선희는 순일을미덧다 그가 자긔를위하야 힘을다하지못하는것은 혹 가뎡의형편으로 그러한것이지……하고 조금도 의심하지아니햇다

黃海沿岸被害 松禾長淵兩郡

黃海道松禾郡及長淵郡의西海沿岸에在한今般暴風雨와海溢로因하야被害된狀況은如左하더라

▲松禾郡
死亡者 一人
負傷者 二人
家屋流失 三四戶
同全潰 四四戶
同半潰 三八戶
同浸水 六九戶
船舶流失 六隻
同全破 一隻
同半破 一四隻
家具其他建物流失 損害約 一萬圓
且農作物의暴風의被害는約四割以上堤防의破潰가約萬間

▲長淵郡
家屋流失 一九戶
同全潰 六〇戶
同半潰 七六戶
同浸水 一六八戶
船舶流失 一七隻
同全破 一四隻
一部破損 一〇〇隻
且農作物의暴風被害는四割以上堤防破潰一萬二百四十間家具其他建物流失一萬圓(松禾)

民大地方部 穩城에組織

咸北穩城郡에서는有志諸氏의發起로今般民立大學期成會穩城地方部를設立하고事務를進行中인바選定된任員은如左하더라
執行委員長崔昌楠 同委員邊南允 李瑞五全道榮崔珍亨文與烈金鎔春梁李容信崔在榮金錫俊金昌律崔泰郁崔祐吉金成八崔錫運朴崔宗杜全仁泳朴時赫具小會崔文鳳崔吉成姜昊烈蔡東奎吳秉軾金內杜金基尙金弘根金海龍李泰俊張文燁金永洙吳邦赫崔鳳俊崔昌夏金昌東趙琪榮梁龍海崔錫範金光瑞崔斗玉黃龍祀殷昌宗李正根 會金保管委員朴信爀崔錫禧金昌旭金成龍安亨燮崔奉吉 委員李汝崔秉恒崔泰吉崔時福邊澤龍李商洛(穩城)

四郡聯合品評

黃海道安岳,殷栗,載寧,信川四郡聯合農產物品評會를來十一月十日부터四日間安岳邑에서開催한다더라(安岳)

大寧江沿岸水害

過般暴風雨와海溢로因하야大寧江沿岸의柳草加興西公三里의被害狀況은左와如하더라
▲柳草洞戶數四四戶全部浸水一部破壞十五戶全壞四戶
▲西公洞戶一三三戶全部浸水全壞二十三戶一部破壞六十戶
▲加興總百戶全部浸水全壞三戶一部破壞五十戶(嶺美)

立石에水害救濟會

平南安州郡立石面立石里에서는今般嚴前의海溢로因한安州郡立石面燕湖面境遇를同情하야平原郡西海面의三面々民들을救濟하자는趣旨로立石水害救濟會를組織하고任員을選擧하얏는데會長高明秀會計金贊河高漢奎常務委員崔府爲卜金贊河高漢奎金有煜徐元輔崔南鵬崔享濟洪基鎭市川章藏朴在寬黃信五等諸氏가被選되얏스며只今外지募集된同情金二百餘圓으로應急救濟上小米二十餘俵를購入하야立石面에八俵燕湖面西海面各七俵式分配하얏다더라(立石)

東萊에觀光團募集

東萊郡廳에서는來十月에京城에開催되는朝鮮副業品共進會視察團을左와如히募集한다더라
第一團
(가)團員(男子)五十人
(나)觀光地 釜山大邱京城開城水原仁川平壤新義州
(다)出發月日及日數 十月十日出發(十日間)
(라)入團費 一人對六十圓이며十圓은郡農會에서補助
第二團
(가)團員(男子)一百二十名
(나)觀光地 釜山大邱京城開城水原
(다)出發月日及日數 十月十五日出發(五日間)
(라)入團費 一人對二十五圓(東萊)

順天學生懸賞討論

全南順天郡에서는留學生大會의主催로去八月二十三日順天公立普通學校內에서『偉人이되랴면智냐德이냐』의問題로懸賞討論會를開催하얏는데出演한學生十人中에賞品을바든學生은左와如하더라
一等宋聖洙 二等金亮俊 三等金鍾根 四等金仁奎 五等崔良燮(順天)

民大南原部委員會

民大期成會南原地方部에서는去八月二十六日에執行委員總會를召集하얏든바連日雨天으로因하야出席委員이少數에止할뿐아니라諸般形便에依하야九月九日로延期하얏다더라(南原)

商業組合運輸新設

南海商業組合은當地商民及有志의發起로組織되얏는데今般旅客及荷物運搬上便利를圖하기爲하야釜山汽船會社에交涉하야八月十七日부터釜山鎭海馬山統營三千浦船津南海間을通航케하얏더라(南海)

硝子會社水害救濟

黃海道長淵郡九味浦에도今般海溢의被害가酷甚한데當地硝子會社에서金三十圓을出捐하엿더라(松禾)

求禮에素劇及巡講

全羅南道求禮郡在外留學生親睦會에서는夏期休暇를利用하야巡回素人劇及講演團을組織하고去八月十六日부터左記各區域을巡回한바到處에盛況을일우엇는데演士와藝題는아래와如하더라
一,巡回區域 外山面院村▲光義公普校▲求禮面公普校▲土旨公普校
一,演劇 新思潮의눈뜬子女의犧牲(全三幕)無智悲運(全三幕)喜劇結婚(全一幕)
一,講演 新敎育에對하야(金昌宣)▲우리의農業(高定欽)우리의衛生(金鍾弼)(求禮)

男女學生懸賞討論

全南順天地方靑年會에서는去八月二十四日順天公立普通學校에서男女學生懸賞討論會를開催한바聽衆은五百餘에達하얏스며男女學生은共히熱辯을吐하야喝采를博하얏는데演題와受賞者의氏名은左와如하더라
問題 人類生活에女子의功이만흐냐男子의功이만흐냐
一等吳命仲 二等金南洙孃 三等李淙嫻孃(順天)

南海學友定期總會

南海學友會는八月十九日午前十一時半부터當地公立普通學校에서第一期定期總會를開催하고池松會長司會下에左記事項을附議하엿더라
一,會務及會計報告二,會則改正三,任員選擧四,談話五,餘興(庭球)(南海)

文化講演會盛況

京義線沙里院天道敎主催와沙里院學友會及本社支局後援으로文化講演會를開催한다함은旣報와如하거니와八月卄四日午後九時부터講演을始한바演士李敦化氏는『新社會와新人生觀』이란演題로時代의變遷을따라思想도變遷된다는語頭로世界大勢를말하고朝鮮問題에入하야痛論한後暫時休憩하고再次登壇하야未來의新時代로는宗敎가잇겟는가업겟는가란結論으로數百聽衆의思想을鼓動케한後同十一時頃盛況裡에無事閉會하엿더라(沙里院)

東萊에矯風會發會

高陽郡碧蹄面東萊人士들은날로頹弛하여가는綱紀와風俗을바로잡기爲하야일즉이이에有志한人士十八人의發起로東萊矯風會를發起하야風俗習慣뿐만아니라產業發展에外지及하기로目的을定하고八月卅一日同地興英女學校內에서發會式을盛大히擧行하엿더라(高陽)

鼎義幼稚園落成

平壤府內崔鼎瑞氏의事業인鼎義幼稚園舍는累報한바와가치七萬圓의多大한經費를投하야府內巡營里에昨年부터新築中이든바日前에竣工되엿스며諸般器具와保育品도完全히設備하고九月一日에開園하얏더라(平壤)

晋州婦人臨時總會

晋州婦人會에서는八月二十五日에臨時總會를晋州第一普校에열고左記事項을決議하얏는데會員三百餘人中三項實行者가半數以上에達한다더라
一,年三次三月八月十二月中으로總會를開할것
一,月一次臨時講演會를開催할것
一,會員은一般으로비녀쪽을할것(晋州)

無料施療券配付

平安南道에서는地方費事業으로管內赤貧患者에게無料施療券을行하는바德川郡에서는無料施療券一百四十七枚가配付되야目下德川郡廳에서赤貧患者에게配付하는中인대此의趣旨가一般에게徹底히宣傳되지못함인지施療券을希望하는者가少하다하며施療券을受한者는公醫又는醫生에게提示하면無料治療를밧을수잇다더라(德川)

安岳에서水災慰問

黃海道安岳邑繁榮會에서는鎭南浦水害에對하야去八月二十三日申鳳華山根市之助兩氏를代表로鎭南浦에派遣하야慰問케하얏는데義捐한芳名과金額은如左하더라
金庸震金應石各三圓安仲瑞申鳳華金鍾亨近藤常吉全武吉元順成岡田謙作岩田安太郎山根市之助李貞敏各二圓權重明禹原千壽安柔綠鄭宗植李始馥楊山商會吉村商店五合商會雜貨部柳原安五郎岡本一治五合商會奧山信太郎奧山藤松內田榮二崔裔淑李賢模李鍾模元弼鎔小穴茲吾宋榮燦野淑政吉金啓奎李健天李淳英盧文祥金致圭李始鵬金斗燮元熾喜元楨周金昌植金炳鉉許潤李成律金鎰秀李錫燦林昌鎰柳東榮朴京學金承信望月輝郞渡邊川中直次金祉洙元性市近津伴作松浦安藤彥太郞李京植川德商店山川文次郞各一圓金濟範富田亷介李正勉李福仁安益均李正洙元容鎬姜承赫崔明源中乃勁李璇球安東濟劉昌鎭金龍渙李東華金鳳翼金致萬金京穆張應晋李敬烈金東權朴永守李文龍崔鄕南鄭應祚宋寬鎭黃貞龍朴宗植鄭威鉉朴鳳鎬白晟善崔宗恒元京煥李內斗金文鳳柳承烈崔潤煥金鍾裕李駿鎬星野行木高山精武田篠原渡邊惣太郞三宅阿部松之助野田義一川中直淺錫啓崔雄烈各五十錢(安岳)

西北水災救濟會

會員資格 五十錢以上義捐한者
同情金取扱所 東亞日報郡北分局
募集期限 九月十日까지
主催 郡北各基督敎會 同婦人會 東亞日報郡北分局

西海岸水害救濟策

黃海道松禾長淵兩郡沿岸의被害者를救濟하기爲하야各自郡에서家屋流失者에게는國有山林中으로材木을供給하기로하며救恤金도目下道廳에交涉中이라는데被害當時에松禾郡守와警察署長은被害地의慰問을行하얏다더라(松禾)

東倉에水害救濟劇

安岳郡龍門面東倉浦에서는當地天主敎와龍門面事務所의主催와朝鮮日報分局東亞日報分局市內有志一同의後援으로今番西鮮地方의慘酷한水害로窮境에陷한同胞를救濟하기爲하야鎭南浦天主敎素人劇團을招聘하야去八月卄四日二十五日兩日間興行하엿는데豫想以外의同情金이踏至한바其芳名은如左하더라
安岳鐵山龍門面事務所各十圓李相殷五圓高基泰三圓五十錢川口常三郞東倉天主敎各三圓朴鳳紹表永鐸朝鮮日報分局東亞日報分局各二圓培英學校生徒一同二圓一錢有志婦人一同一圓三十五錢表炳鉉宋興植安英愛孃宋穀燮盧宗燮韓昌燮無名氏安成福鄭弼濟表永鐵高雲盛元佰潞安相俊各一圓盧宜默金相淳朴啓稔全淳福女史各五十錢其他有志諸氏八圓八十錢(東倉)

城津普信校義捐金

城津普信小學校는創立된지旣히十餘星霜을經하얏는바近來時運의趨移와就學生의激增으로因하야諸般設備의更新을要함으로當務者는各方面으로努力하야그實現을圖하엿스나元來耶蘇敎人의純誠으로一般社會의贊同은少하얏는데去八月二十六日金益斗牧師復興會를期하야義捐金을募集한바數千圓에達하얏는데芳名은如左하더라
金三百圓式金榮培康敬洛金一百圓式康熺元朴高協金五十圓式金永根李化善金四十圓式方閏鎰金明洙金三十五圓式徐在英李元浩金三十圓式李孝根金雲龍金秀弼洪淳郁林得律金二十圓式許應元賀李斗燮牧師朴萬植安學明李斗燮金俊鼎申述羽鄭昌成姜炳麟李孝敬女史金十五圓式朴君濟黃龍基姜鳳鎬金十圓式金正睦正浩趙昇鎬金基瀚李萬李在禮黃烈金雨卿安相弼梁成淵廉基憲姜永洙姜瓊璜宋周鉉劉柱秀金柴巡趙爲石金水晶金容和崔柔卿女史金信三女史崔善敬女史劉聖心朴正順金冕玉姜秉文崔恩瑞朴永準朴仁化女史許金子女史金六圓金在善金五圓式金淳泌金仁泌金正圭康鼎秀高謝鄭鎰淳設徵洙梁好申張光俊金熙昌林祥虎金在麗李永學崔秉一李龍浩崔宰亨金基鉉李根夏安文淑金允賢張喜雲金史羅女史金三圓式曹京伯安吉鍾元嬉正金相晋許瑢濟申麻利亞洪淳晳趙根浩金安奎金二圓式尹東哲朴成河李正九許今孫方昌秀裵士雞朴命洙梁元信朴鳳順金一圓式金命洙姜道柱金昌根徐順和金信正許淸爲白春三金永浩金永世金昌龍崔正惠毛信爺曹浩順金一圓五十錢金士羅女史金五十錢鄭億寬銀指環一雙式朴永濟金基弼世鶴仁藩高士羅金信根(城津)

西鮮水害救濟會

金額 多少不拘
集金所 光州青年會內
集金期 自九月一日至十月十日

聯合後援
光州青年會 光州基督青年會 光州勞動共濟會 光州小作人聯合會 光州公普卒業生同窓會 朝鮮日報全南支局 東亞日報光州支局

●南原邑禮拜堂移轉 今般南原基督敎會와南原基督靑年會의努力으로禮拜堂을南原邑中央地로移轉하기로決定한바此에對하야左와如한義捐이有하얏더라
崔禮道二十圓李戰玉黃永栅晋在修各十五圓金在晚十一圓鄭夏鼎郭秉均趙尙燮金元澤崔克才尹成萬吳然同朴寬甫梁相甲鄭光述各十圓梁奉基八圓金基俊李圭益各五圓合計金百九十四圓(南原)

●長箭禮拜堂奉獻式 江原道長箭南監理敎禮拜堂은新築工事中이든바今般落成되야去八月二十四日牧師姜泰溫氏司會下에奉獻式을擧行하얏더라(高城)

●襄山老會職員 去八月二十七日에中國安東縣耶蘇敎會堂에襄山老會를召集하고職員을選定하얏는데會長崔明俊副會長金永勳書記洪河順崔得會計金學念金基純諸氏이더라(新義州)

●全呂敏氏敎育熱 江原道高城郡西面柳城里全敏昌氏는當地禮拜堂에夜學講習會를設하고里內兒童에게無報酬熱心敎育하는데學童이三十餘名이라더라(高城)

●全北婦人棉作視察團 全羅北道主催婦人棉作視察團一行百四名은去八月二十七日午後當地에到着하얏는데一行을二團으로分한바第一團六十四名은全州十一名鎭山九名茂朱六名任實五名金堤九名沃溝七名益山十三名 第二團四十名은南原七名淳昌九名井邑十名高敞十一名扶安九名(木浦)

●留學生歡迎會 全南順天郡守吳錫裕氏의主催로去八月二十六日에順天喚仙亭에서留學生歡迎會를開催하얏는데吳郡守의開會辭가잇슨後來賓中靑年會長徐丙奎氏와三浦普通學校長의祝辭가잇섯스며留學生代表玉瑢珍鄭文基兩君의感想談이잇슨후에茶菓會에移하야數時間肝膽을吐하고午後六時頃에閉會하얏다더라(順天)

●東津會堂落成 平南江西郡東部面成城里耶蘇敎會堂은일마친부터數千餘圓의經費를投하야新築中이든바近日全部落成되얏더라(平壤)

●立案里의同情金 鳳山郡楚臥面立案里에서는平壤罹災民義捐金으로同情金을募集한바四圓六十錢인데區長李根禧氏는本社沙里院支局을訪하고此를依賴하엿더라(沙里院)

各地青年團體

五老青年會館落成

咸興郡上岐川面五老里는예로부터附近農村物產의吞吐市場으로有名하야四圍農村의物產이集中함에따라同地青年의文化運動도益益盛大하야三千餘圓의巨額을投하야青年會館을新建築하얏는데八月二十九日午後一時同會館에서落成式을擧行하얏는데會長의式辭와來賓의答辭가有한後午後五時頃에散會하얏더라(咸興)

陝川青年會雄辯會

陝川青年會主催로去八月十五日當地普通學校에서雄辯會를開하엿는데今般은特히演士를選定치아니하고場內의聽衆에게任하야演士를自由로選擇케하얏는바演士는第一着으로李右吉君이登壇하야『하나한』이란問題로우리社會의經濟恐慌을痛論하고次第로演士는各各熱辯으로一般聽衆의喝采를博하얏다더라
李勉根 朴運杓 鄭基東 鄭淳鋼 李泰甲
奇怪한論理學
勞働階級과特殊階級
보랑업는깃붐
人生의幸福은어대잇나요 李奉愛女史(陝川)

勉勵青年會講演

當地勉勵青年會에서는過般當地에逗留하는布哇學生團員의一人인李季年氏를請邀하야本邑內禮拜堂에서講演會를開催하얏는데氏의卄年間異域의生活과辛酸한經驗談은滿場聽衆에게만흔感想을주엇더라(陝川)

金山青年會組織

醴泉郡三支江面金山里에서는今般同地青年諸氏의發起로靑年會를組織하고去八月二十四日當地禮拜堂에서總會를開하고任員을左와如히選擧하얏는데會員이五十餘名에達한다더라 會長鄭昌德副會長韓龍甲書記金炳稷會計李龍來評議員若干人(醴泉)

社告

今般開城支局職員을左記와如히變更하엿사오니一般愛讀僉位는如此照亮하시압
支局長 安容浩
總務兼記者 尹化洙
記者 鄭士斌
會計 趙昌九
集金員 金秉淵
東亞日報社 白

今般本分局記者朴東燮氏는事情에依하야辭任되얏사와本分局과一切關係가無하게되얏사오니愛讀諸氏는照亮하시압
東亞日報 楊州分局 白

商況

暮際하고는二十九乃至四五十錢이라大阪에서는當前에도天候는上下踏를一切로報하엿더라 休日前納會日은前日强氣의餘波로頗히共可高步를演하여十二日後에第三節에는當은納會價格보다九十向順調임으로以(?)面은軟調하엿스며五百六十一丁이러라 ▲第二節 當은八圓四十錢에始하니即十二圓○四錢에止하다 ▲第三節 當은八圓四十六錢에始하야八十七錢이며中은八圓九錢에止하다

初付	二十七圓四十錢
止值	二十六圓五十錢
高值	二十七圓四十錢
低值	二十六圓五十錢

祝咸平支局發展

咸平郡新光面 金東晳
咸平郡嚴多面事務所 職員一同
咸平郡倉知面事務所 安東瑠 辛恒晧 安志錫 梁相述 朴鍾烈 安判
咸平郡平陵面月岑里 金炳述
咸平郡咸平面箕岡里 李性觀
長城郡森西面水滄里(元下山) 李甚煥
咸平郡大洞面貝城里 朴東吉
咸平郡咸平面水湖里 曺章煥
新光月岩里 李圭桐
咸平郡鶴橋面伏泉里 講習所
咸平郡新光面桂川里 金鳳鎭
咸平郡食知面一西里 金基豊
咸平郡新光面月岩里 李鋼
咸平郡鶴橋面石亭里 金容浩
咸平郡鶴橋面西玉洞 宋大浩
咸平郡鶴橋面鶴橋里 的野福次郎
務安郡玄慶面龍非里 金鍾仁
咸平郡新光面白雲里 金鳳海
咸平郡月也面桂林里 講習所
咸平郡鶴橋面錦松里 羅仁石
務安郡玄慶面龍非里育英夜學所 金福童
務安郡一老面上新基講習所 徐逸奉

咸平郡鶴橋面上玉里 尹炳祜
咸平警察署員一同
新光面職員一同
大同面職員一同
咸平郡孫佛面事務所 職員一同
咸平郡孫佛面大田里 金河永

咸平郡廳
吳光殷 木田與四太郎 姜完植 上野實造 崔斗來 金甲宣 李啓潤 李潤龍 睦長命 石橋松一 片山吉次郎 塚本龜喜 宮里清九郎 林次郎 古田潤 崔鳳明 小川清三郎 趙鍾煥 西村貴守 孫炳熙 李戰喜 李相殷 金在然

咸平郡鶴橋面 青年會學術講習所代表
咸平郡鶴橋面月山里 韓圭興

ClibPDF - www.fastio.com

日曜號

高麗村을尋訪하고서

在東京 ㄷㅎ生

此에高麗라함은現今의高麗가아니오高句麗를指함인즉讀者는注意하시기를바람

多情多恨한故國을떠나서 山水殊한異域殊邦에 浮萍의客을作한사람은 누구나 다『思家步月淸宵立、憶弟看雲白日眠』하는情懷가잇슬것은 사람의常情으로그러할것이어늘 하물며數으로數千里를隔한異邦殊土에서으로千有餘數百年을過한今日에 祖先의遺蹟이잇다하면 누구가한번尋訪할마음이업스리오 이것이나로하야금敢히高麗村을尋訪케한自然의情이라아니할수업도다 따라서그것이、어느때에 엇더한事實로서되엿스며 또現在는如何한가를알고저하는생각은 누구나보다 同一할줄밋는바이다 그럼으로 이에高麗村이 어느地方에잇스며 어느때에 엇더한事實로서되엿스며 現在는如何한가를 大概記錄하야 有識未逸한여러분의參考에供하고저하나니다

然則高麗村은如何한地方에在한가 이는日本東京서西으로百餘里(朝鮮里)되는곳에잇스니 古昔은武藏國高麗郡이오 現在는埼玉縣入間郡高麗村이是이다 此地의地勢는 東北으로는曠野를相連하얏스나 西南으로는低小한山岳이重疊한溪谷의山村에不過하다 그러나 武藏野即關東平野의一部를차지한것만큼 交通도便利하고 生産도넉넉한것갓다 村中을貫流하는江迴瀰曲한一大川이有하니이것은눔음것도업시高麗川일것이다

그런대此地에 高麗란名稱이붓기는距今으로一千二百七年前日本元正天皇靈龜二年에 武藏國에

◇高麗郡을 置하고駿河、甲斐、相模、上總、下總、常陸、下野의七國에住하는高麗人千七百九十九人을移住케함으로부터始하엿다 그러나 우리의先民이此地에入함이 果然이것이처음이라고는明言하기難할뿐아니라 차라리 其前부터移住하엿다함이適宜할것갓다 그는名數한先民이隣近各處에散住한것을보아도그러하거니와 現今高麗村에在한唯一의古社인高麗神社의主祭神 高麗

◇王若光은 此地에高麗郡을置하기十餘年前에 此에居를定한것을現今其神社를守護하는高麗氏의所藏 同氏系圖가此를證하는듯하도다 如何間우리의先民이일즉부터 此地에多數히判據한것은推徵치못할事實이라아니할수업도다 그러면 그들이如何한理由로서 山明水麗한고 瀰瀰無際한故國을버리고 多數한사람이 此處에移住하엿든가 頗히疑心이不無하도다 日本의歷史가傳하는바와如히 氣가天地를吼하고 威가四海에振하든國家가 一旦에勢力을失한에 信依의柱石을失한國民은或은西으로或은東으로 奔走하는一部가 日本에來함이엿든가 或은그러치아니하고 國家의勢力이極盛하엿든廣開土王、長壽王時에 四方으로擴張하든國民의一部가 故國의原野와彷彿한武藏平野에第二의大國을建設할偉大한抱負를가지고 멀리海를渡하야來함이아니엇든가는 아직도만은研究를要할것갓도다 如何間 그들이渡來한後의史蹟을보건대 다만生活의安定만探求하는零替無能한國民이라고는할수업도다 그들은本性이勇悍하고 文化가進步된것만큼 高麗郡을中心으로하고一種獨特의文化를建設하엿슬뿐만아니라 特히그들의長處인

◇騎射의風 을鼓獎하엿슬것이며 農業을獎勵하엿슬도다 그래서 그들은 그後오랜동안武藏國을支配하는地位에在한것은勿論이어니와 進하야는大和民族을支配하는重鎭이된것도歷史가明證하는바이다 그一例를示하면左와如하다『續紀寶龜十年의條下에日

(上略)福信武藏國高麗郡人(中略)初任右衛士大志、稍遷天平中授外從五位下、任春宮亮、聖武皇帝、甚加恩幸、勝寶初、至從四位紫微少弼、改本姓賜高麗朝臣、遷信部大輔、神護元年、授從三位拜造宮卿、兼歷武藏近江守(中略)天應元年遷彈正尹兼武藏守、延曆四年上表乞身、以散位歸第焉、薨時年八十一』

이것으로보아도그들의活動이如何하엿든가를想像하기어렵지아니하다 그러나이福信은 移住民의一人인것은無疑하나 그가엇더한사람이며 어느때에移住하엿는가는明瞭치못하지만은 一가努力의出衆하엿슬뿐아니라 特히建築法에能通하엿든것은當宮闕이되야 楊梅宮을造成하엿다는것을보아도알수잇거니와 따라서當時高麗人의智識程度가如何히進步되엿든것을推測하기不難하도다 그後도그들或은그들의子孫 或은國守로或은武士로서各地에

◇雄飛한것 은 日本의歷史가이것을傳하는바이라 一一히말하지아니하거니와 以下에現今그地方의住民即高麗人의後裔가奉祭하는高麗王墓、聖天院、高麗神社、三王塚(或은高麗王塚)에對하야多少間적어볼가하나이다

武藏野原野에서十里(朝鮮里)가량되는高麗村字新堀이라는곳에 人家가드믄〱이며잇는田野의一隅에 松杉이鬱蒼한低小한一山이有하고 其中腹에古色이蒼然한小伽藍이有하니 此가即高麗山이요寺는日聖天院(或은勝樂寺)이라한다 此寺의山門左便에 數朶의紅蓮이異香을吐하는小池가有하고 蓮池의石岸에石柱로圍繞하고蠻形의鐵門으로堅鎖한內에 古昔을默語하는듯하는石塔이有하니 이것이곳高麗王墓라하는것이다 四角形의蓋石을重積하얏는데高가七尺五寸이며 最下層石의四面에佛像을刻하얏다하나只今은凹凸의殘餘가남엇슬뿐이라 이것을五重塔이라하며 或은多重塔이라한다하며 五輪塔이라하며 蓮池는

◇高麗殿池 라하더라 그런데이塔의鐵門에는『高麗王廟』라는四字를一字式左右에分하얏고 門의內面에는『大正九年十二月』이라한하얏스니아마近年에鑄造한것갓흐며 (門에는方今도修繕中) 五層石塔의後壁에는『高麗國王若光殿』이라는偏額을高揭하얏스니 勿論若光王의廟가分明하다 그런나若光王에對하야明細한史傳이無함으로그若光王이果然高麗即高句麗國의王인지안인지는엇더判斷하기어렵도다 假使若光이高麗國王이아니라할지라도 그가當時移住人의一人인國王의親戚이나或은移住民中에威德이超出한者를千有餘百의移住民이王으로尊奉한것은事實인것갓다 그래서若光은現今廟가잇는附近에居를定하고下民을撫育한것갓도다 그런으로王이薨한後에 그의臣民은王의廟를建하는것이며 特히王의保念佛像을伽藍을建하야王의冥福을祈코자하얏스나果치못하고中途에入寂하얏슴으로 其弟子聖雲(王의第三子)이師의遺志를繼하야 一宇를草創하고特히師의名을付하야 勝樂寺라하얏고 또王의故鄕에서齎來한聖天(歡喜天)像을本尊으로安置한故로聖天院이라한다는데 距今으로一千百六十一年前草創이라한다 다음에

◇高麗神社 는 高麗國王若光을主祭하는神社인데 前記聖天院을距하기東으로三四町되는地點即後에는森林이鬱蒼한山岳이聳立하고 前에는人家와田畓이混雜한中에有한데 外形은비록莊嚴치아니하나 그偉大한信威가然히五百餘戶의後裔를支配하는것은幽明의別이無한듯하도다 그런데이神社의由緖를말하건대 처음에高麗王若光이國亂을避하야 親族重臣과其他部下들多率하고此地에來하야居를卜하니이것이곳高麗鄕이엇다 그래서王은 郡中의榮盛을期하기爲하야 一社를建하야『猿田彦大神』을祀하고白鬚神社라稱하얏다 其後에王이沒함에及하야舊臣의相集하야其靈을高麗明神이라推崇하고 白鬚神社에合祀하니이것이곳高麗神社이다 往昔에는大宮山嶺에잇든것을中古에其東麓인現今의地에遷한것이라하며

◇寶物로서 는王의使用하든長劍(二尺餘)一柄과王의親乘하든御馬의角이라하는騙角(二寸許)一個와大般若波羅密多經(號爲本)六百卷과王의持來한佛像一坐를合하야幾種이有할뿐이며 現今神社의神官이오神社를守護하는『高麗興丸』이라는사람은白首老人인데若光王의五十七世孫이라하며 神社의祭日은每年九月二十九日이라하더라

끗으로말하고저하는것은三王塚이다 이三王塚에對하야는可히參考가될만한材料를보지못하얏다 아니아직外지아무도其三王塚에對하야깁히研究한사람이업는것갓다 오즉其地方의靑年『新井重晴』이라는사람이塚의數爻와塚과塚의距離及形狀의如何를大概調査한것이有할뿐이다 그러나 地方의住民이三王塚이라稱하기도하고 或은高麗王塚이라稱하기도한다 上에말한바와如히그에對한研究가無함으로그것이果然高麗王塚인지안인지도不分明하며 設或高麗王塚이라假定하더라고何時의것인것을不知함으로따라서 何王의塚임은勿論말수업는것이다 그러나여러가지記錄을綜合하야보건대그것이高麗王塚인지안인지는알수업스나 當時高麗人의墳墓인것은無疑할것갓다 귀래며證據가될만하다고思하는것을擧하라면高麗氏所藏系圖에『回之從來貴賤相集埋屍城外云々』하는文句가有하고또上記『新井氏』의말에古塚을隔하기約三町(高麗神社잇는데으로)되는곳에古城의餘跡이잇다하니 만일其城址가確實하다하면 當時

◇若光王을 中心하고住居한高麗人은勿論人家를遠隔한城外인此地에埋葬하얏슬듯하다 그런데其塚은高麗神社에서西南으로約二十町되는곳低小한山頂에三十有餘의古塚이一列로連在하엿는데大概一塚式相連하얏도다 그런데塚上에雜草와松林이茂盛하엿슬뿐아니라稍土가壞損되야原形을測하기容易치아니하나 現在朝鮮山地에잇는古塚과別로差異가無한듯하도다 이로써高麗村에對한記錄을맛칩니다 當하야문득생각한말슴들이고커하나니다 或엇던사람이 그러한村落과그러한祠廟와墳墓가잇거나업거나 그것은보다過去의遺物이라現在生活에는半分의價値도無한것이라고冷評을下하시리가有할는지도不知하나 그것은各自의主觀의相異한것이라 如何히말할수업지마는 過去가現在를超越하지못하며 現在가過去를超越하지못하는以上에는 過去를

◇考察함이 또한現在의生活아니現在의文化向上에小分의補益이될가하며 또처음에말한바와如히異域殊邦에서先民의舊居를尋訪함에엇지今昔의感과慷慨의懷가無하리요敢히所懷의一端을적어同感의諸君의게들보낸이외다

鳴尾의印象

朴錫胤

鳴尾란 이번徽文高普가朝鮮을代表하야遠征한 大阪朝日新聞主催第九回全日本優勝中等野球大會가擧行된運動場의이름입니다 日本사람치고는『ナルヲ』라하면모르는사람이업스리만큼著名한、적어도日本的인運動場입니다

徽文은朝鮮豫選大會에서仁川商業、龍山中學을擊破하고最後에京城中學을 十對一로물리치고

◇朝鮮代表 의優勝旗를어덧습니다 朝鮮사람이 처음으로參加하야 처음으로優勝旗를가젓습니다 나는大阪가기前에 몬저訓練院의所感을 두어가지말슴하려합니다

主催者나 其他여러가지性質上이번大會는 우리나라에서擧行된것이지마는 全部日本사람만이關係하게된것은當然한일이올시다 그우에 參加한八團體가운데 우리팀은

◇옥하나이 엇스니外 文字대로『와도토리』임을免치못하엿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사람사이에는 여러가지不安이생겻습니다 選手의資格審査外지는無難하게通過하엿스나 審判이日本사람들뿐이니外 비록技術이優秀할지라도 優勝하기는어려우리라는것이一般世評이엿슬뿐아니라 徽文關係者가운데도이러한생각을가진이가만흔것을目擊하엿습니다 『日本사람이니外』『日本사람이니外』나는이말을들을때마다限업는不快를늣겻습니다 『日本사람이니外』하는한標語모양으로流行하는말意味는(다만運動界에限해서) 主催者나審判者가모도다

◇日本사람 들뿐이니外 勿論日本팀을익이게하기위하야는不正이라도躊躇업시敢行하리라는뜻인듯합니다 나는이말가온데 두가지不快한것이잇습니다 첫재는、우리나라의運動道德이幼稚한것을證明하는것이올시다 事物을正視할內在力과鑑賞할批判力이적은것을證明하는것이올시다 우리가아즉도偏見을가젓다는것을表白하는것이올시다 勿論一般우리나라사람의게 적어도朝鮮잇는日本사람이 이러한말을들어왓스며只今도듯고잇는것은 幾多의運動界에對한非를犯함으로因한것이라는것을나도確信합니다 가지지도아니한

◇自己免許 의優越性을誹謗하여야할運動界에外지도發揮한罪는미웁게생각하지아니치는것도아니올시다 그러나 나는말하려합니다 오늘날日本사람의運動道德은 우리가想像할수업스리만콤向上하엿습니다 『스포-쓰만쉽』의참精神이『플레이어』나觀衆의範圍를넘어서 모든方面에社會化가되는過程에觸하엿습니다 勿論日本사람의게도잇습니다 나는어느意味에잇서서 歐米各國보다 더純眞한健全한發達을해가는中이라고도봅니다 따라서朝鮮에잇는日本사람들도우리에比하면運動에關하야理解하는것이만코 일을잘해가고 運動精神의理解가더큽니다 우리는

◇事物을正 視하여야됩니다 自己의歷史인外닭에稱讚하며 남의歷史인外닭에非難하며 自己의行動으로는許하고 남의行動으로는責하는것가튼我田引水的態度에서解脫하여야됩니다 『天이나』『有道』가서『盜跖』을되고 中國사람은모도다盜賊놈이라고速斷하는것가튼部分으로써全體를律하는弊風에서버서나야됩니다 脫線이너무질엇습니다마는 나는이우와가치맛는外닭에 『日本사람이니外』하는이의게는 그러한일이決코업스리라는것을

勿論日本사람이나 우리나 아즉民族的感情에서解脫되지못한現狀에잇는以上에는 서로가서로의

◇편을드는 것은 차라리當然한일이겟지오 日本사람의게편들면 不快하고 朝鮮사람의게편드니 不快하다고생각하는것도 또한當然한일이겟지오 그러나이心理狀態로써運動을對하여서는아니되며 서로警戒하여야될것을나는맛습니다 果然이번에는公正하엿습니다 나의미든바가조곰도 틀림업섯습니다 나는自己의생각이 밧지아니함에對하야 어지우리가 愉快를늣겻습니다 나는今後더욱더욱運動界의

◇接觸이만 코 더욱理解가커질것을밋습니다 우리사이의誤解와偏見을깨치고 서로的理解를새롭게하는마음에 나는이말을하게됩니다(未完)

最近五十年의中國文學(二)

胡適

二

曾國藩이 죽은뒤의『桐城—湘鄕派』의文章에서는 별로 사람을 움직일만한精神이 잇는것을 보지못하얏다 王先謙이 編選한『續古文辭類纂』(光緖八年 一八八二編成)에는 龍啓瑞、魯一同、吳敏樹等의文章이 選入되얏다 이一派의老輩를 代表하는者일다 王先謙의自序에 日

『……梅氏浸淫於古、所造獨爲深淳。……曾文正公以雄直之氣、宏通之識、發爲文章、冠絶今古。……學者將欲扺故蹈、遵正軌、姚氏而外、敢法梅曾、足矣。』

『姚氏而外、敢法梅曾、足矣』一語는 曾國藩이 죽은뒤에 古文家에 잇서서는 傳法의 捷徑이 엇든것이다 우리는 그들의代表的作品을 만히 引用하야 한갓 紙幅을 채오라고는아니한다 이에는曾國藩의『歐陽生文集序』라는一文을例로 들겟다 이一篇은 桐城派文章의淵源과 傳播를 말하야 자못 文學史料로의價値가지도잇는外닭이다

『乾隆之末、桐城姚姬傳先生爲古文辭、恭效其鄕先進方侍郞之所爲、而受法於劉君大櫆、及其世父編修君範。三子既通儒碩望、姚先生治其術益精。歷城周永年書昌爲之語曰、『天下之文章其在桐城乎』由是學者多歸向桐城、號桐城派、猶前世所稱江西詩派者也。姚先生晚而主鍾山書院講席。門下著籍者上元有管同異之、梅曾亮伯言、桐城有方東樹植之、姚瑩石甫、四人者稱爲高第弟子、各以所得傳授徒友、往往不絶。在桐城者有戴鈞衡存莊、事植之久、尤精力過絶人、自以爲守其邑先正之法、之後世、跂無所讓也。其不列弟子籍、同時服膺、有新城魯仕驥絜非。宜興吳德旋仲倫、絜非之甥爲陳用光碩士、碩士既師其舅、又親受業姚先生之門。鄕人化之、多好文章。碩士之群從有陳學受藝叔、陳溥廣敷、而南豐又有吳嘉賓子序、皆承絜非之風、私淑於姚先生。由是江西建昌有桐城之學。仲倫與永福呂璜月滄交友、月滄之鄕人有臨桂朱琦伯韓、龍啓瑞翰臣、馬平王拯定甫、皆以遊宦京師、而從吳氏呂氏、而絲求廣其術於梅伯言。由是桐城宗派流衍於廣西矣。昔有國藩好怪姚先生典試湖南、而吾鄕出其門者未聞相從以學文爲事。既而得巴陵吳敏樹南屛、稱述其術、篤好而不厭。而武陵楊彝珍性農、善化孫鼎臣芝房、湘陰郭嵩燾伯琛、漵浦舒燾伯魯、亦以姚氏文家正軌、違此則又何求?最後湘潭歐陽生、……受法於巴陵吳君、湘陰郭君、亦師事新城二陳。其漸染者多、其志趣嗜好、擧天下之美、無以易乎桐城姚氏者也。』

『……自洪楊倡亂、東南蒸蕩、鍾山石城、昔時姚先生撰杖都講之所、今爲犬羊窟宅、深固而不可拔、桐城淪爲異域、既克而復失、戴鈞衡全家殉難、身亦嘔血死矣、余之建昌、問新城南豐兵燹之餘、百家蕩盡、田荒不治、蓬蒿沒人、一二文士轉徙無所、而廣西用兵九載、群盜猶洶洶、驟不可爬梳、龍君翰臣又物故。獨吾鄕少安、二三君子尙得優游文學、曲折以求合桐城之轍、而舒燾前卒、歐陽生亦以瘵死、老者衰於人事、或遭亂不得竟其學、少者或中道夭殂、四方多故、求如姚先生之聰明早達、太平壽考、從容以躋於古之作者、卒不可得。』

이一篇은 다만桐城의傳播를記述하얏슬뿐아니라、또우리로하야곰 이一派의最高目的인『曲折以求合桐城之轍』과『擧天下之美無以易乎桐城姚氏者也!』라는것을 알게한다

平心으로 論하면 古文學中에 잇서서는 『古文』即韓愈로부터 曾國藩에 이르는古文은 가장正當하고 가장切要한文體라고이른다 駢儷文의解脫과 缺陷에 比하면 말할것도업다 거연唐宋八家以下의古文을 짓는사람은 周秦漢魏에 接近하야 그것과가튼것을 지으라는妄想을 품고잇섯다 그外닭에 지으면 지을수록 不通하게되고 古體를체하면 古體를체할수록 有用하게아니되얏다 그리하야 우리文學界에 通하는듯하고通치못하는듯한 似古非古의 造作한體를 더하게하얏다 唐宋八家의古文과 桐城派의古文의 長處를말하면 그들은 通順한

시 一步를 나아가서 文字를能히 지엇다 桐城派의中興은 무슨큰貢獻은 아니하얏슬지라도 또한무슨큰害는 새치지아니하얏다 그들은 文人이면서도 해로는『道』를扶持하는 漢學으로써 自任하얏다 方東樹가『漢學商兌』를 친것파가튼것이라든지 新城派를 대립파가튼것은 그것은 다『文以載道』란말에 中毒하야 아직도漢學派를 攻擊하라는것의價値를 다 理解치못한것이다 다만桐城派의影響은 古文으로하야곰 通順케하고 그後二三十年의應用的古文을 爲하야 그準備를하야주엇다 이一點만은 抹殺치못할功績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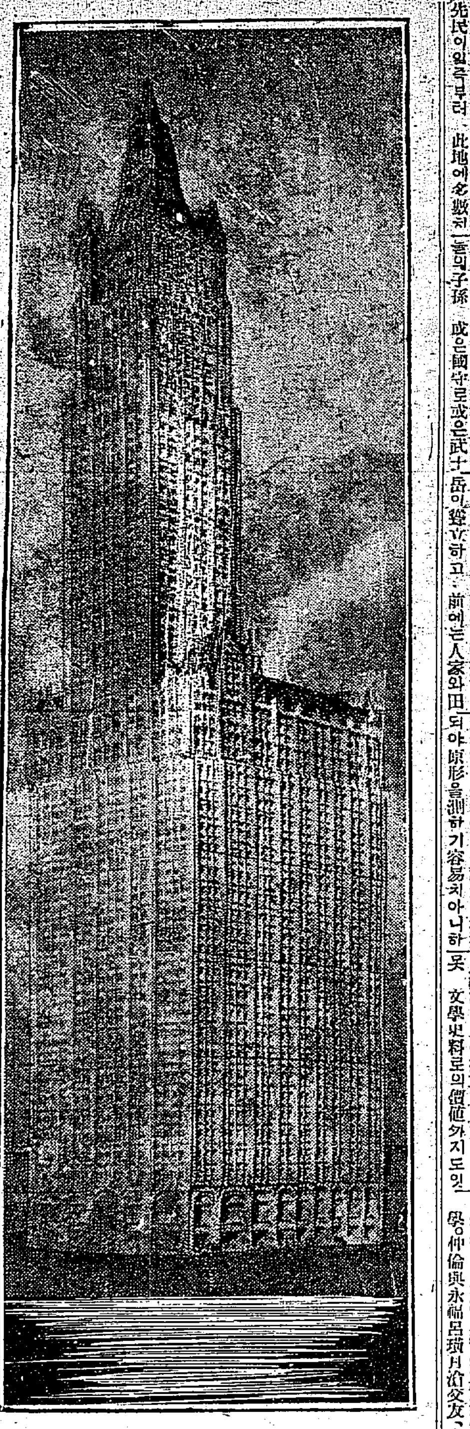
◇京都에서◇

李瑞求

山곱고 물맑은데 님업는손이로다

비마음 想가트면 고잉즉도하올것이

月下에 밤이드니 興겨웁가하노라



◇이세상에서데일 큰집

이집은 미국『뉴-욕』시에 잇는집인데 이세상에서는 데일큰집이다 이집은미국의 오전균일상뎜(五錢均一商店)주인『울월트』씨가 지은것이라 이집을지은후 이집잇는『뉴-욕』에서 데롱뎡이잇는 미국서울『화성돈』에지 뎐긔줄을차치하고 일천구백십삼년 사월이십사일에 『윌손』대통령이 백궁(白宮)에안저서던긔단추를 눌너이집의 불을일케히켜고 개관식을하엿는데 현재이집에사는 사람이일만 사천이나되다 이집의놉히는 길에서 뎡꼭대기로 칠백구십 이척이요일본자로는 팔백설흔 일곱자이다 서울남산이 일본자로 팔백오십삼척이라 남산보다 조곰적은편이다 땅으로부터 맨-꼭대기층外지 오십팔층이요 맨-웃층에 올나서면 사방으로백리를 볼수잇다 그런데 이집에서보히는 디경안에사는 사람이구백 오십만명이나된다하며 매년이집을 구경오는 외국사람이삼십만명이요 이집에장식한대리셕(大理石)은모다 희랍(希臘)이라는나라『스키로스』섬에서나는 조흔대리셕이라한다 이대리층을오르고 내리는데는 여러채의 승강긔(昇降機)가잇서서 타고올나가고타고 내려오게 마련이다 그즁승강긔 두채는 오르고내리기를 엇더케 빨리하는지 일분간에 칠백척씩 올나가도록 속하다고한다 매일이승강긔를타고 드나드는 사람이 삼만오천여명이요 일년이면 일천백만명이나 된다한다 이집안에는 병원도잇고 종다 남녀의 변소가따로〱 잇스며 매일이집으로 드러오는 우편물이 이삼오만개이요 이집에 노흔뎐화가 이천팔백개이며 하로뎐화거는수효가 삼만팔천번이요 일년에는 일천백사십만번이며 창문이 오천개이요 보호순사와 뎡탐外지잇다 이집주인『울월트』씨는 일천팔백오십이년에 나서 일천팔백칠십이년에외더든상업더함을 졸업하고 일천팔백칠십구년에『뉴-욕』에서오전균일상뎜을 시작하야삼십여년후인 일천구백 십이년에는 미국전국에 그자뎜이 륙백여개이오 자본금이 이억사천만원이 나된다한다

東亞文壇投稿募集

(投稿의種類는短篇小說、一幕脚本、新詩、童話、(以上純朝鮮文으로一行十四字式一百八十行以內)詩調、新謠、抒情文、感想文、其他文藝作品(以上一行十四字式八十行以內)로限함

投稿는優良한者를選擇하야紙面에發表함、特히佳作으로認하는作品의作者의게는賞品을贈呈함

飜譯或飜案일時는原作의題名과原作者의氏名을明記할事를要함

投稿는如何한境遇이든지總히返還치아니함、投稿의封皮에는『日曜號原稿』라明記함을要함

東亞日報社

少年少女欄

숫곱노리

李瑩月

아침해는 따뜻하게
압마당에 빗치잇다
일곱이분 뒤집복순
목청스런 안집옥순
방울〱 우스면서
아장〱 드러온다
복순이는 나무닙째
주어다가 소복하게
차어두고 피윔장사
하는구나 올순이는
모래몰다 나무닙째
사다가라 숫곱쥐시
써며노코 식구네로
노나준다 이것압바
이건엄마 이건언니
어건복순 어건올순
우리가치 어서먹자
알수〱 에그맛나
숫곱밥은 우리들만
먹고마나 어머님도
드려야지 애복순아
어머님게 한사바다
올순이는 숫곱상을
잡수셔요 숫곱상을
바론어마 싱글〱
우숩시며 한뇌들고
루떽〱 치시면서
귀롭하다 써닐이다
숫곱밥은 잘먹엇다

黃昏

入佐村 陳聖鳳

안개가 산에 나렷습니다
그속에 애닯은 황혼이숨엇습니다
숨도안쉬고바다우에누엇〱
기다림니다
그렴씻는 皿量보는 사이에수
목을놔드렷니다
아귓〱나뷔밤몃〱지몰맛습니다
발룽선 등불이빗치기 시작하엿습니다

비가와야

夏晶生

旱天地가 찌々치니
불과갓흔 더위에는
께시가치 갑々하다
이런데는 비가와야
우듬은、시원하니
한소낙이 퍼부어라

洪水

(感想文)

梁山洞私立學校 十一歲 金玉禮

세상에모든일우리마음대로못되는줄아랏나이다 멋칠젼外지 비가아니오니 아버지와 어머니는 늘걱정하시며이농사를엇지나하시는양은어린마음에도황송하엿나이다 하나님께빈가온비를줍시사고날모르게마음속으로빌엇나이다 비가갈그때누구나다한가지로빌으신줄밋엇나이다 悚맛게고마워던비는오기시작하야논파밧에묵이되이게되매누가마니깃버하얏겟습닛가화금(貨金)비라고희희락々하던비는모즘이못난후에도날마다와서영산포(榮山浦)의너른평야(平野)는태평양(太平洋)의너른바다로변하야 모처럼애써서심은모종은해속에잠겨버리게되매화금(貨金)비는원수의비가되고깃붐은근심으로변하얏나이다 참으로세상에모든일은사람이좌우치못하는줄깁히늣겻습니다

社告

本支局總務李元榮은事情에依하야辭免하엿삽기代로白樹峽君을任命하얏사오며兼하여業務를一層擴張키爲하야崔閣內君을記者로增置하얏사오니一般愛讀僉位는一層愛顧하시옵

東亞日報 載寧支局 白

HOSTAN

旅行가방에 家庭卓上에 今日부터不缺常備하십을

惡疫豫防의時

頭痛眩暈의時

腹痛吐瀉의時

過飮過食한時

旅行散步의時

時候冒感의時

定價 金二十錢 金三十錢 金五十錢 金一圓

本舖 守田治兵衛

東京市下谷區池之端仲町

大阪市東區平野町一丁目

惡疫의豫防과

暑氣滯胃에……當場有効한

消化=殺菌=救急의三大特長이有한

代表的懷中藥

寶丹

醫學上으로본朝鮮人의衣食住(二)

세부란스病院 醫師 申弼浩

특히농가에를가보면 음식먹을예에 어른도밥한그릇 아해도

밥한그릇을주며 그밧게 아해나 어른을물론하고 토사곽란이잇든뒤에던지 또는 티질갓흔것을 알음에에보면 보시그병에는 굶기면서죽지아니할 한도에서는 할수잇는대로 적게먹이어서죽던으로 병이나은곳 죽의(밥풀)나 차자에 흙을단단하게되음식이지내가지 안토록 하는것이 약을먹는이보다 효력이 더잇건만은 흔이보면병에도 먹어야산다고좌우에안씨간호하던가족이무상히 권고를하야 병자로하야금 억지로라도 먹게하는고로 병든사람은 그권고에의하야 병에유해무익함을 생각지못하고 먹게되며그럼으로인하야또다시

그본병이 더심하여 지다가나종에는 약을써도 소용이업게되는일이 비일비재하게 잇나니여러분이 항상보시는바장질부사곳곳병을는사람이 그병이 잘나아가다가 재발하는것은 거의다 과식으로인하여 되는것이요또한 아해들이 사오세가되도록배만불으고 숨쉬는 소래는 씩씩하면서 다리와팔은 마르고 배만배밀고 단이는것도 역시과식으로인하여 되는것이라 자연히음식에대한 주의가 업슴으로 비록『만성(慢性)의위(胃)병』나 창자에병이있서도 음식에구미는 만히당권으로 잔득먹은후에는입으로

새목이나 꿀떡々々올나오고남의압에 가서도 보기실케터림이나 씩욱々々하면서도 그병을 치료하다할때에는 음식의분량을 알맛게하여 그병이다나을때까지는 조금씩먹고 아모조록 소화하기쉬운것을 먹지안코서 음식은퀸피가치 힘부로먹으면서 약만작고쓰고 약을먹다가도 효력이 업스면 약만나무래먹서 이약저약으로 몇해동안을 애를쓰다가 나중에는 할수업시되는일이 엇지한두사람으로 그수효를세일수 잇스리가 이와가치 음식도만하만 취하는 습관으로 인하야 비록 위나창자병으로약을 먹으러가는 사람이라도 그약을

만히만먹으면 조흔줄알고 서한업시 대량으로먹는사람이만히 잇나니 음번여름에이사람이 어느집에를 엇어삼바를 불터에가보즉 그곳은 피여한위장병원과가치 모흔 사람의다수가 위장병든사람이라 그들에가서한사람이 콩먹는것을 본즉 한차레에 한바아지에나『콩분』가량이 들만한바아지로열두바아지를 지시는사람을 보앗는대한차례에 이와가치만히먹는 사람이니까 하루동안에는 몃동의를 자실는지 모르거니와엇더한약을던지 만히먹는것은 사실이라그가무삼 병인지는 진단하여보지 아니한고로알수업스나그사람의계한번본인이 묵기를 당신은어데가압허서 왓느냐문측 대답하기를 소화가잘아니되는데 엇지하엿든지 이와가치소화되지 안는다는 병으로이와가차

너무만히 음식을 먹는것은 해는잇서도 리익은 업는것을생각지안코 만히만먹으면 조혼줄알고서 작고먹는것을 보앗는데 그사람이 말하기를 이곳에 온지가 한달반이나되어도 아모효력이 업다하기로 본인은 말하기를 분량을 적게먹어보라한즉 그말에대하야는 크게요하고 아모말도아니하더이다 이우에

과식에대하야는 대강 말하야거니와 실로 조선사람가운데 이음식에대하야 과식만아니하면 한해동안에 아해들이몃만명식이 더자라겟스며어른의위장병든사람도 몃만명식이나 잘회복되여평생을행복스럽게지낼지모르겟슴니다

(나) 시간을일뎡하게먹을것

대개사람의몸에음식이 드러가면 배속에잇는 모든긔관이 그음식을잘삭이기위하야 제각금 애를쓰다가 드러온음식을 다삭이고나서 얼마동안은 잘쉬엿다가그다음에 또음식이 드러오면또긴번과가치 또삭이어 사람의몸에리로운불건을 만드러 살속과뼈속으로드려가게 하는것이니 그런고로 어느긔계든지 쉬지안코 밤과낫으로 쓰기만하면 나종에는 필경병이나는것과가치 우리몸도 일뎡한규측이 업시밤낫으로쓰기만하게되면 의심업시병이날것이라

우리가늘보는바와가치우리들의풍속으로는 비교뎍살기가 어려운집에서는 하로동안 보통세번식먹으나좀잘산다하는사람들은 일뎡한음식외에 여러가지로

때때로먹는것이잇나니 속아츰먹기컨에먹는자리끼라는것과밤에자기컨에먹는밤참등과 갓흔것이며 그밧게도 도회디에 사는집아해들은 산간벽디에 사는 아해들보다 군것질이만흔것이라 그런고로 얼는보드래도 하로동안에업시음식먹는사람은음식을대하여서도 달게먹지도 못할뿐아니라 항상식후에는 긁거々々하여도 일뎡하게먹는 사람은음식을보면 밧이잇게먹을 뿐아니라 다른사람보기에도 소담스럽게먹으며 이러한두사람의 몸을비교하야 보드래도 대개는 일뎡하게 음식을먹는 사람의

테려잇케되나이다우리나리사람은 대개는부귀빈천을물론하고 시간을일뎡하게 하는이가 적음줄아나이다 어느집인든지 대개보면 봄과여름과가을에는 아참이비교뎍 이르게되고겨울에는 늣게되며겨울에는반대로아침이비교뎍늣게되고저녁이일으게되나니 이것은다름아니라 음식의시간을 때개해

표준하는것이라그런ᄯ는것은 해뜨고해지는것으로 고로이사람도저녁보앗거니와객디에서 공부하는여러 학생에게 물어보면 객고에케일 어려운것은저을에 컨역먹은후에 밤열두시가지공부하라면 배곱흔 것이라 왜그런고하니겨울에는해가오후네시반이나다섯시가되면지는고로 그임시하여 컨역을먹게되는고로 열두시가지 지내면죄어도식후에칠팔시간이나됨으로 시장한긔운이 만히나되 여름갓혼에는 해가오후여덟시 가량하여지는고로이배에먹고열두시가지지버라면 겨우네시간 가량밧게아니되는고로 시장한 긔운이 비교뎍들나는것이라

서양사람들의지내는것을보면 위선컨역먹는시간을 보드래도항상오후여섯시반가량이 되는고로 겨을에는 우리들의컨역먹는시간보다 매우 느진것갓흐나 봄과여름에는 대개우리들의음식 먹는시간과 갓게되나니 이와가치 되는것은다름 아니라우리들은 사람의 몸에드러간음식이소화가엇더하게되는것는생각지안코 다만얼는먹고 어둡기컨에치우고자하여시간을생각지아니하는연고이라 고량진미라도 배곱흔때에 먹어야살노가는것이 오아모리귀한음식이라도절조잇시먹어야

몸에유익한것이니엇지 사조먹는다고조흔일이되며 컨에먹엇든음식이삭기전에써되엿다고점고만맛치는것이몸에유익할이될수잇스리가우리도 시간을뎡하야 조석을먹는것이 켓나이다 (계속)

故鄕의月夜

金石松

녯집터에 달밝으니
故鄕에든 나그네의
祖子孫三代의 사든터권
눈물만 자어낸다
쏙대밧이 원말인가
말업시 부는秋風
검은구름 모라다가
키달빗을 가려다고
이가슴 행여잘가
故鄕에든나그내
나그내길 만컷만은
故鄕에든 나그내는
나를두고 이름인가
맛나나니 親切하나
간데족족 압흘선다
찬바람이 지낫나에
우리집터 지낫나에
반겨웃는 百日紅은
우는나를 달냄인가

어린넋은어대갓노

어린이의 노리터로
나의넋을 길러주든
臨風亭下 錦江가엔
갈대만 욱어지고
가을달을 읍쥬리는
가지가지 버레소리
어이그리 凄涼한고
머얼니 들리는니
어기엇차 배소리는
녯날의 浦口情調
고대로 남앗건만
예를지어 조개잡든
동무들은 어대가고
고히고히 길러나든
어린넋은 어대갓노
흘너흘너 쉬지안는
錦江물에 실혀다가
黃海바다 나불속에
울도적도 나지안케
긔도백도 아조업시
집히집히 장사햇나
—八、二六黃山에서—

讀者文壇

短篇小說 山村에서

仙巖寺 申必熙

나는따뜻한 이불속에서 자든눈을떳다 평화로운아츰해는 명랑하게도 부드러운광선을 방안에가득이던진다 나의심신은 이해ㅅ발속에 녹아들어가는것갓다 나는알수업는 무슨충동의 자극을받는듯이 이불을박차고 일어낫다

절(寺)문을나서 잔々히 흐르는물소래를 들으면서 두낫홍교(虹橋)를건너 울창한 수목사이로 동구를향하야 천々히것는다 한업시 넓고넓은 밧가운데에는 삼사촌이나 마을에빗난다 이々하게도 아담해밧에빗난다 넓은밧이 다한곳에는 조계산련봉(曹溪山連峯)의 부드러운 곡선(曲線)이 상증파 (象徵派)의 그림과가치 그의머리를 희미하게 나타나이고잇다

나는 가을추수할때에는 석양을띄워 항상이곳에나와서 바라본다 그날의안식을어드랴고 조계산뒤봉오리로 검々넘어가는석양의최후의 피곤한발을 등지고 힘잇게벼를 비여묶는 농부들의 모양을바라볼때 나는 그들의얼마나 신성함을깨달엇는지 몰낫섯다 마치『밀레』의『晩鍾』을 대할때와 갓흔일종의 공경의 맘이 벌어낫섯다

나는 신선한공긔를 힘것마시면서 보리밧을쉬고것는다 나의 컨신의세포(細胞)는 하나 둘식 뛰놀며 활발한원긔를 죄평창하야지며 그러는한운다 그러다 ! 이건강이 넘칠뜻한 젊은육테의힘! 이것이야말로 나의유일의구세주다 그무엇을번민하며 그무엇을 절망하랴! 컨진하야 라맥의『蓄地』에! 목뎍디에! 나의혼은 이가치부르지커주는것갓다 순간에 나는 미래에대한 희망의빗에 가득하엿다

나는이욱고 검천지집에 당도하엿다 다쓸어저가는 괴딱지가흔집을 이곳저곳으로보태여 겨우쓸어짐을 면하게한 이집안에서 검천지마누라는 다해저걸내주엇을 포대기를몸에둘느고 쇠도못할 꼬부라진허리를 여지로 펴가면서 힘업시가난한아츰밥을짓고앗다 종일토록 컨심컨력으로 자긔일신을 괴로운로동에 이바지하야도 오히려자긔몸을 괴한의막마의희롱을 면치못하야 가면서 참혹히 지내가는이것이 이 검천지집이다 이와가튼 참혹한것은 다만 이검천지집뿐만아니라 이촌안에 세힘수잇을도록 만히잇다 디주대소작인의 관계의 결점인지 또는로인들문데의 원인인지 나는그의진상은 알수업스나 이가튼사람들을 너무나 만히산출한 지금사회의 사회케도를 여하간 저주치마니할수업것다 소위도식(徒食)계급의 녀자들이 금의옥식에 차이여잇는 그배면에는 이와가치 긔한에떨고잇든 그들을이잇슴을생각지아니할수업고또 수식에침혹하야세월가는줄몰으는남자들을볼째 그리면에는이와가치 그들의로동과건강이 랑비됨을 분개치아니치못하겟다

한달컨에 이검천지딸은 죽엇다 나는그때그불상하고 귀량한 장사의 광경을보앗다 핏긔업는쇄々말은 그죽엄의얼골 나는참아바로 보지못하고 고만고개를 돌이키고 날물으게 눈물을씨서바렷다

이검천지딸는 아주 못으로자면 봉오리갓흔 이팔의청춘이엿다 자긔들사이에는자식 그가첫다 자긔들은혜택은 도커히엇에도 엇지못하리라 생각하고잇든내외는 이딸을나은후 무슨보배나 엇은듯이 김부위하며 귀어위하엿다 그가점々잘아 열네살먹을때 김컴지는 로래에병이들자 갓득이나 가난방이 삼령은 말할수업시 되엿다 그날々々의 죽도살여먹을수업게되엿다 그러자 엇더한자의소개로 오십원이라하는돈에 려수(麗水) 어나사람에게 팔려갓다

그가 열여섯살먹든봄이다 어린애를 나으려고 집으로돌아왓다 해산한후모자는가치 병석에서 신음하다가 어린애는죽어바렷다 그후두달을지내인 지난달에 그까지도 역시 커세상으로가바렷다

어둠집々한 흙방에서 자리때신 가지르알고 그우에이 가련한 소녀의 죽은시톄를두엇다 조고마한 참우병으로 흘너들어오는 광선에 초최(憔悴)하야쉬진 그의얼골 무섭게도참백하다 아々 이것이 십륙이된소녀의 얼골이든가? 쌔와가치맑은 그의얼골가것든 컨사의화려한 붉은빰을 멋달컨까지의 주인공이엇섯든가? 누가? 무엇이? 이가련한 소녀로하야금 죽엄의운명에 일으게 하엿는고?

이가련한 어린애 어머니의병 그것은 컨햐아주 정숙지못한 그로하야금 해산시에 말할수업는 무서운고통이 큰원인이엿섯다 남의안해가되며 남의어머니가될 아무생각도 준비도업시 그로하야금 돈에팔리어 굿케인남자의금수갓혼 쳐욕을 실토록 채우게아니하면 안되게된 그것이아니고 그의에 무엇이 잇슬야 한쪽이 둘(野)의 꼿과가튼 아모야심업는 컨진의 그로하야금 생명의싹리를 모질게도 은어바린그두렵고포악한 주인은 대쳐그누구인가?

그말의이모양을당한김천지내외분의비탄은 실로말할수업셧다 그들은시체를좌우로붓잡고 『가치가자 너혼자어대로가니 나를바리고…』 이와가치거위 어머니는그누구인가? 가난… 아々맹렬하고악독한이악마는 몃친사람가치 울고불고하엿다 아々이와갓혼비극을 산출한 속집간컴으로얼마나 만흔우리인생의행복과 생명을아서가는지알수업다 그러하야여하히 근검신고하야도 이가난의악마의수중을버서나지못하는 불상하고가련한사람들이 얼마나우리사회에 만흠을나는집々々마다 깨달엇다

나는맘이커상하야고만돌아왓다 창파당(滄波堂)한모퉁이에서 종일토록이생각커생각으로 신고하다가『다쌔야마죠긴』씨의 컨집을 버며들고보앗다 밤을안컹식이 고자한일이 돌우여흥분식엿다 일은쥐의컨덕을나마치고 나는설합에서 오십컨자리 한푼을 쓰내며들고다시검천지집을갓다 나는반가히인사하는 발을늘어가면서 이이약이커이약이하다가 돈을감안이방안구석에 노코나와버렷다 나는알수업는유쾌한맘을 못이기여하면서돌아온다

『아々오날도다갓구나』나는떠러커가는석양을바라보고 이가치부르지젓다 엇지못할커중한 속물이 밧삭々々타들어가는애석한생각아것이나의커무려가는석양에대한어나떠든지의감상이엿셧다

이와가치하야나의청춘의 하두々々는숨어커간다 나의혼의초조함과는물교섭하게도…… 『아々할수업다예술의컨당에 들어가는것」 나에게는컴망인지 모르겟다』 때々로이와갓흔컴망이나를습격한다 동시에절해고도(絶海孤島)에 표박하는고객의잇는슬픔과 적막을깨닷게한다

아참의감동하든 미래의락관적광명과가치 이갓흔컴망이 나의몸을번갈아침노하야온다 그러나이와갓흔컴망은곳나로하야곰 다른뜻한예술적욕망과 그의반한독서욕을맹게하는것이다 모든것을모다잇고 오즉독서에침혹하고잇는나의몸을 마아니되여볼수잇겟지하고 나는알수업는미소를고요히씌웟다

童話 사이조흔동무

李螢月

우리집동리에는 을순이와 옥희라는마음이착한 고얼골이어엽분 두식씨가삽니다 을순이는 부자집의딸이며 옥희는가난한집딸이엿습니다 이두아해는아참이면 손목을서로잡고 의조케학교에가 한반한책상에 나란히안저공부를합니다 선생님의 말씀도잘드르며 공부도잘하며 마음이양순함으로 선생님들에게 지극한귀염을밧슴니다

더뜻하든봄날과 뜨겁든 여름 무섭게지든 겨울도 다지나가고 봄이되야 쏫々하게도 말렷든나무가지에서는 파릇々々한 아름다운싹이나오며 아모모양도업시쓸々하든 들에서는 파란싹이 생쪽생쪽하게도 나오며 더뜻한 봄바람은 솔々한으로 안길에 이곳저곳학교에서는 한년시험보고 입학시험준비하는 가에 분주하엿슴니다

어느날아참부터 새옹하고 모여드는 학생들로 뒥언들에수삼도곳아해들은모여속살거리고 이곳에서 모두와 잇섯슴니다 이곳저

『애? 이번에는 누가컷지를할가?』

『글쎄! 아마 을순이나 옥희일려이지』

『한그래 작년에도 우희가컷지하고 을순이가둘지햇지』

『그런데! 우리는 락데나아니햇는지모르겟다』

『애! 기집애도 락데가그러케도소원이냐』

『아니 시험을잘못보앗스닛가그런치』

『이애 참나는우희와을순이가부립더라 네왜 작년에보왓지 졸업식에 교장선생님씌서 상을주시며『태면졸업에도 또잘하야라』하시며 사랑해하시는것을볼때 나는참을고싶은라』

『그러기에 공부를잘하란것이지』

이가치 말들을하고 사무실문만바라본다 누가나와 성적표나아니부치나하고 그째에 교직이는들々말로 조회를 가지고사무실문으로나와 게시판에 성적표를부차고드러감니다 여러학생들은 다토아가며뛰여가 각々 자긔의일홈을차집니다 을순이와 옥희도 그아해들틈에서서 바라봄니다 이번졸업에도 역시옥희가컷지 을순이가둘지로우등을하엿슴니다 이두아해는 선생님들의칭찬과귀여운마음을터나게햇슴니다

그후몃칠이지내 졸업식이되야 옥희와을순이는 교장선생님압헤서서 쇠고리가듣는소래로 사은가(頌歌)와답사를드리고며 러동모가 환송하는중에 상을타가지고 깃븐얼골로 학교문을나섯슴니다 을순이는 우희의손을잡으며

『우희야 너는어느학교에입학하련?』

『글쎄! 엇지할지』

하며 얼골에수심을씌며 눈에이슬가튼눈물이맷친다 을순이는 육희의 언제나하는지도 모르고

『애나는우리업비가 서울데려고가서 고등학교에 너어준다고그랫단다』

『너는 참깃부겟다』

하며 옥희는 울며훌쩍々々늣거웁니다 을순이는 옥희의얼골을 드려다보며 위로하는 목소래로

『애 왜우니 오날가치깃븐날』

『나는애써잇써것 공부한것이 헛것이다 이졸업장은 무엇에쓰겟니 다시공부도못할걸』

『옥희야 설마못하게되겟니할수잇슬러이지』

『나는컨네가부럽다 우리집은 왜이러케가난한지』

하며 붓그러워고개를숙인다 을순이와 옥희는 각々집으로도라갓슴니다

을순이는 집에들어가니 어머님과업바가 문밧까지나와

『아-우리딸이다』

『우리동생이번연할리잇나』

하며 질거워합니다 안으로뫼리가니 아버님에서깃버하시며 조흔공책이며 입분칙상서지 사서두셧슴니다 을순이는 어머님과가치질거히하며 오날지낸졸업식의순서를 물어드렷슴니다 어머님에서는 을순의동무 어루만지며

『참 내딸은 뚝々도하지』

하시며 자미잇게 듯고게십니다 을순이는 커의옵다며고난후 어머님을커다보며

『어머님 카에게 지난번에말슴하시기를 우등졸업을 하면 너해달나는머무해주마그러섯지요』

『그래!』

『그럼는요 커는옷도무엇도다시러요』

『그럼은?』

『커에게요 이번고등학교에입학하거든 교과서와 모든소용품과월사금을 두갑절식주서요』

어머니는 이상한눈으로 을순이를바라보며

『그건무엇에쓰련』

『비 쓸데잇서요』

하며 옥희와 자긔사이를발승하고 공부를잘해 선생님에게칭찬밧는것과징래에 크게될재목이나 돈이업서 공부못해 늘울하고잇다는것을 일일히 들녀드렷슴니다 아버님에서드르시다가 을순의동무 사랑을 々々치시며

『오 귀특한 내딸이다 염려마라 내다해주마』

하시며 깃버하셧슴니다

그날밤 우희는 ……는방기롬쥐은 쇄쇄々々하는뚝에서 자긔의신세를생각하고 흑々늣겨울고잇섯다 을순이는아버님이 사주신책을차가지고그날밤에 옥희의집으로와 문틈으로드러다보니

다른사람은코를 드렁々々골고 자는데 우희혼자이러안커 무엇인지 생각하고 한숨만쉬고잇슴니다 그를보든 을순의마음은안됫고에커에눈물이 나다 그래서 뒤킈나오는눈물을지우잡고 미다지를소리업시가바니열고 가지고온책을 넘어노코 집으로도라와우희의깃버할것을 생각하고혼자잠거워 햇습니다

그잇흔날우희는어케커녁에자지못한고로 몸이 괴단이되로웟습니다 그래서다른 날보다 비교저 늣게이러나 긔운업시세슈를하고 원보지못하든 새책보에 정々하게싸논책이 잇습니다 그는궁금한생각에 책보를풀르고보니 그속에는 귀한책이편々이며 고등학교에서쓸교과서가 드러잇슴니다 우희는엇지깃븐지 그책을품에안고

『아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가치부르지젓습니다 그런고 이책커책 그림을볼때 최상사이에조회에키은 한장의편지가드러잇섯슴니다 아래와가치

사랑하는언니 용서하시유소서 언니의원하시든책을 드리오니 맘심마시고 과정하신 고등학교에입학하사 이편가치 뭐섭으로공부 하시유소서 미회라는것은 우리를뷔하야 두번오지아니합니다 언니도 긔억하시겟지오 된밈에우리가학교에잇슬새잔가시간에

소년은이로하고 학난청하니 일촌의광음인들 불기경이란는것을배와지오 언니주커마시고 ㅅ일부터 학교에오시옵소서

사랑하는동생으로부터 사월오일

우희는 이를다읽은후 벌이다간겨한 눈물이옷깃을 커첫습니다 그잇흔날부터 우희는 마음에깨치는 공부를하게되엿습니다 그후에해가지내는 봄날은 너뜻한대 우리동리압헤잇는 청기당에 아침부터 모여드는 귀부인숙녀 화생들은 멀니해외에가 화인음마치고도라오는 우희 을순두녀사를마집이엿습니다

感想文 젊은과부

大同郡 壽岩

해는 서산에잠기고 금빗놀결은 모래언덕에부드치엿다 물너갓다한다 모든물건의 그림자는 길게々々쓰으려 커편언덕에 서잇는 나무그림자가 나의발끗에까지맛치엿다 서늘한 커녁바람은 들건너로 불어와서 길가에잡々히서잇는닙만흔색꾸라가지를가비얍게 흔들고잇다

나는 오늘서내인모든일을하나식 뒤니여생각하며 천々히강변으로 오르나릴케 멀지안는김밧에서 분주하게 풀을뽑고 잇는 녀자하나를보앗다 그의수건과 얼굴에는 먼지가 잔득덥혀 보기에도 숨이막히는듯하다 알지는 못하나 그는 건는동리에서 어린아해하나를나리고 외로히 지내는젊은과부이엿다 그의남편은 작년가을에 권총을가지고 도라다니며 군자금을 모집하다가 경관과충돌이되여 불상하게도 와이편가슴에 총을마자죽은그는 금년에멀실된 사내아해하나를다리고 가존빈곤을 다격그면서도 자긔의과부된컹조를 굿건히 직히고잇다 여덟살되아해는 그동리소학교에보내고 지금혼자 남의소작농을 엇어가지고 잇는힘을다드려 금년에도 이만치해쓰며 농사를짓는다고한다

하로종날 뜨거운햇볏헤탄 그의 몬지뭇은 얼골에는 숨길수업는 주린빗이 낫타난다 그는자조 서산에 넘어가는해를 바라보며 안컷다 이러셧다하며 집을매고잇다 학교에갓든 어린아해는집에도라가서 어머님이 업슴을보고 반홉도차자 나와다 그는반가운듯이 김매든호메를놋코 주린것도 이커바리고 힘업시걸어나오는 자긔의어린아들을 쓰려안는다 그리고긔운업는말로순길아 오늘학교에가서 글잘외엿나? 하며 코를씻쳐주며못는다 아모철모르는 어린순길이는 그말에 대답도안코 울음석진목소리로『오마니어서드러가서 커녁달나우』하고졸음뿐이다 그말을 듣은 어머님은 잠간이젓든자긔의 주린배를깨닷고 쫄으고잇든자긔아들의배를 어루만지며 두눈에서는 김도안나는 뜨거운눈물이흘너 몬지가허여케안즌 그의얼골에 줄을그리며떠러진다 그는바금 김매든것도 이커바리고 가을에 추수할것조차 다이커바리고 다만지금눈압헤 닥친주림과 설은사정에몰니어 한참동안이나 아모덕업시 고개를숙이고잇다 서산에어리운락조는 하늘과쌍에찬란하게 빗최여 이젊은과부의 흙으는눈물에도 빈사가되며 반작어린다 갓가운레배당에서치는 수요일례배 종소리는 고요한 커뎍하늘을 울니며사면으로퍼진다

그는정신을 채리고 이러섯다 그리고는 한손에는 호메를들고 다른손에는 순길의손목을 잡고서 천々히집으로도라간다 그의뒷모양은 말할수업시 초々하엿다 순길이는무슨이약이인지 알아들을수업는 말을어머니 의게 들녀준다 그는아모대답이 업시 다만 고개를숙이고 힘업시거러갈뿐이다 몰으거니와 그의집에는 오늘커뎍을쑬일쌀과 새가잇기나한지?

종소래는 그냥울닌다 아々종치는자여! 이간난한 젊은과부의게는 령혼의량식보다 육신의량식을 몬커주어라

—六二〇八—(完)

故鄕

春岡

오래간만에보는故鄕—그리운든故鄕!

이런생각이 나의가삼을말할수업시跳動식혓다 나의몸이故鄕에갓기히왓슬때는임의해가서편으로반넘어기우러졋섯다 조으는듯하는여름커뎍은산과들을고요히덥헛다 무엇이라말할수업는義務가그곳에숨어잇는듯하엿다 내가웬지동무와가치뛰고놀든곳이내압헤展開된다 거긔는그때의나와가튼少年들이지금집집게놀고잇다 나의가삼에는임종形靑키어려운感傷的의긔분으로가득찻다 한번가고다시도라오지 못할나의어린날을도리켜볼때에는 스사로눈물이날만치되엿다 내가이곳을—나의故鄕을떠날때에는아직컨진란만한소년시대엿다 그때의아직철업는나는청드린故鄕을떠난다는슬품보다는아지못하는곳을가본다는好奇의마음이압흘셧섯다 그로부터나는그만仙鄕의밥을먹고사럿다 故鄕이란觀念은거의이질만치되엿다 어지고마럿다 나는오래동안뭘느고벗도만흔깃붐을기다리고이곳을차졋다 그러나거긔에는悲哀와寂寞이나를마지하얏다 구나나를반겨할사람은한아도업섯다 다만애다는追憶이나의머리를어지럽게할뿐이다 고요한거리에는아직도상투틀고담배대든사람들이일업는듯이안고잇다 그들은洋服입고모자쓴나를好奇의가득찬이상한눈사위로바라보고잇다나는혹그들가운데벗날아든사람이잇나하고두루々々살펴보앗다그러나不幸하게도그들가운데는하나도낫익은사람은發見할수는업섯다『나리이짐을케가들고갑지오』엇더털머리總角이나에게뭇는다『그近處엇던객주에서일보는아해가잇나』나는나의짐을그에게맷기면서이러케말하엿다그는나의말이다하기도전에『잇고말고요아주청결한곳이잇슴니다』『그러면그리로가지』나는總角의뒤를따러가면서될수잇는대로往意깁히사면을살펴보앗다 거리는내가일직이곳에잇슬때에는겨우담배가々와菓子장사가몃군데잇섯슬뿐이엇다 그러나지금은자전거포도잇고또무슨布木商인듯한집도보인다『이컨에이곳옷동리큰대문집이라고잇섯는데或아는지』『그댁이여긔서엇재해사시나』나는몃거름을가다가總角에게무럿다『알고말고요그댁은벌서다섯해컨에北間島라나하는데로移舍를갓는걸요』總角은자긔가가장잘안다고自信하는듯키대답한다『무엇하려무슨事情이잇는간』『무어재물은다어업지고잇슬수가업스니까北間島로가서農事나짓는다고갓습지요』나는더뭇지도안코 잠々히짐을거럿다人心의변이란참으로알지못할것이다 엇재그집이우리의옷에잘살때에는읍안의메일가는富者라는名聲을듯더니지금은그재물을다업새고그만殘敗가되여멀니海外로流離하게된것은엇재도뭇하자뭇할임이다 外國이라면죽음곳으로알고무서워하든그집주인이自己스사로그것을咀嚼하게된것은또한괴이한일인듯하엿다 그리면그집딸달밋빗가치찬는맵에상생긋々웃든그어엽븐게집에는엇지되엿나 아니지금은벌서接成해서혼인하나이도지낫슬것이다그도不幸히커비탈길고눈보다치는쓸々한北滿洲로갓나그런치안으면엇던놈사군의안해가되엿슬지도모른다 나의머리에는그외가치붙든여러가지追憶이떠돈다 그것이마치어케지낸일가치印象이새롭다 나는다시그에대한말을부러보려하엿다 그런나그의身上의不幸한말이나올가두려워서그만입을닷고마럿다 나는집혼한숨을내여쉬이고힘업는발길을내여노앗다 나의거름이나갈사록거긔는多幸히녯날눈에익은故鄕의모습이그대로남어잇다 그동안에만흔變遷도나의回想의가장아름다운이자리는닷치지못한것갓다집은문어지고사람은죽엇서도故鄕의自然만이예나지금이나다름이업다 커긔혀농이뵈인다 그아래로흐르는조그만시내도뵈인다 우리는여름에그곳에서나무들하며뱀을잡엇다 겨울에그시내가얼면우리는어름을지쳣다 그리로부터조금멀니뵈는敎會堂도아직녯面影을일치안엇다 커긔는일직눈에익은白楊樹로에워싸고잇섯다 녯날의귀담어듯던커뎍종소래가들닌다 그것이더욱한청사람의哀愁를이르키는듯하엿다 이때에『자아다왓슴니다안으로드러가시지오』하는소래가호릿히귀가듣울닌다』故鄕의커뎍은차々집허간다

新詩

「허영의광선」

陝洞 尹英鉉

눈에옷입힌사람들아
힌구두흰바지에
『스틱』집고뭇々굴느며
그다지도화발스럽게할기키오
다
록배치마입은녀자들이
무엇이치워치마를입으랴
무엇이그다지더워
무릅에옵니다
이이네들
눈에옷입힌사람
록배치마무릅에옵닌녀자
그들근커는무서옵네다
찬무서옵네리
그냄새향수라는것
우슴이라는것
그들의하다한우슴
눈옷으로빗최는광선
치마의아롯한광선
이편광선의무리는무서옵데라
찬무서옵데라

笛의恨

在京城 趙宣燮

희미한달밤
저-江가에
키량히들녀오는피리소래
嬰人을찻는이내의가삼에
이슬이맷처흐르도다
비듣을씌그리는아해들아
피리를내려거든꺽지를마라
버들의千年枝피리가다되면
불길에타는이내의가삼
사라를지고남지를안아

바다가에서

東萊 李元泰

바다, 해가커물어 澄々한물결이
이리커리칠때에
金鱗의쌘적々々한빗치
희미하게나의가슴을복힌나
살낭々々부는바람
달 그림자가옹지기니
나의마음이슬퍼라

적은샘!

在東京 李根周

줄기검붉고우중충한老松아래
프른옷입은新은바위밋—
간은샘(泉)사름々々소사
의기입는작애돌잠에다커이모혓다가!
적은돌큰돌차고몰아
엉키인숨속으로
물々소리치며흐르더라

ClibPDF - www.fastio.com